

최성묵 평전

차성환 지음



1. 출생과 유년 시절	3
2. 소년시절	8
3. 6·25전쟁의 발발	10
4. 생사의 기로에	12
5. 인민군 야전병원	15
6. 다시 남으로	18
7. 혈육을 찾아서	19
8. 기적의 생환	20
9. “원수를 사랑하라”	20
10. 서울대학교 입학	21
11. 최석현 장로의	24
12. 부모님이 불참	25
13. 포 고등학교	28
14. 한신대 입학	29
15. 4·19와 기독교	30
16. KSCM 간사	32
17. 기독교 학생운동	35
18. 연세대 연합선교회	38
19. 운동의 제단에	40
20. 부산으로 가다	41
21. 거리의 신학자	43
22. 미문화원 학생	44
23. 부산 YMCA	45
24. 중부교회 전도	49
25. ‘책방골목’지	50
26. 중부교회 담임	52
27. 부마 쟁의 폭	55
28. 뇌졸중으로 쇠	57
29. 부림사건과 대우사건	59
30. 중부교회 분	60
31. 민주화운동의 서서	67
32. 사회사업에도	68
33. 6월 쟁과 대우령 선거	69
34. 설교와 신학사상	72
35. 거인의 최후	73

말씀은 몸을 ~~부~~해서만 산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몸 ~~부~~한 리듬이 현존(現存)의 역사다. (오재)

1. 출생과 유년

최성묵은 1930년 11월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 부친 최석현 장로와 모친 안갑선 권사 ~~의 넷째~~로 태어난 누나가 두 분 이고, 아래로 여동생과 남

1930년이 저물어가는 ~~이~~ ~~년~~으로 1931년 7월의 만주사변, 1937년의 중일 ~~전쟁~~ ~~시기~~가 막 시작되려는 무렵이었다.

홍해는 동해안에 위치한 ~~사람~~ 살기 좋은 곳이었다. 경상북도는 안동을 ~~중심~~ ~~삼아~~ ~~있었던~~ ~~곳~~으로 홍해 역시 그 영향권 ~~에~~ ~~있~~은 이 지역도 예외로 남 겨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1912년~~ ~~11월~~ 일찍부터 기독교회가 전 파되었던 지역이었다. ~~기독교~~ ~~교회~~가 설립되었다. 미국인 아담스 선교사가 파송한 ~~김상연(金尙淵)~~은 복음에 김 동받아 홍해 최초의 교회

최성묵의 부친 최석현 ~~장로~~ ~~로~~ ~~만~~ ~~발자취~~를 남겼던 신앙인이었다. 그는 유교적 교양을 ~~상반~~ ~~한~~ ~~것~~을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 었으나 결혼 후 부인을 ~~홍해~~ ~~기독교~~ ~~로~~ ~~전~~ ~~향~~했다고 한다. 그가 기독교에 입문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록에 ~~따~~ ~~라~~ ~~면~~ 장로는 1933년 홍해교회의 장로로 장 립 받았으며, 1934년 1월 28일에 포 ~~항~~ ~~기독교~~ ~~교회~~ ~~전신~~에서 장립 받아 시무하였다. 1936년에는 홍해교회의 제3대 목사인 ~~최~~ ~~성~~ ~~묵~~ ~~이~~ 사임하자 임시 교역자로서 1940년까 지 3년간 시무하였다. 이 기간 동안 ~~교회~~ ~~활동~~의 결과, 교인 수가 장년 226명, 유년 주일학교 학생 250명으로 홍해 주민 ~~의~~ ~~37%~~로 교세가 확장되었다고 한다. 1939년 3월 현재 작성된 영일군 일대의 교회별 ~~수~~ ~~를~~ 보면 전체 24개 교회 중, 교인 수는 포 타

음... 많았고 교회 재...에 비해 압...
많...

최석현 장로는 교회의...를 가졌을 뿐
그...강직, 청렴하기 짝이 없...이었다. 그는
전...적인 유교 교육을 받았지만,

는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였다. 그...는 생활...
생활은 자식들의 삶에 큰 영향을...

그 시절에는 최 장로의 학교 동...
데 그는 일제의 지배에 봉사하는
런 직업을 갖지 않았다.

최 장로에게는 누이가 한 분 계...
해초라는 분이였다. 그는 넓은 어...
업을 돕는 집사 일을 하면서 생계...
얻기는 어려웠던 듯하다. 왜냐하면...
지탱이 되었기 때문이다. 안 권사의...는 흥해에서는 유명했다고 한다

안갑선 권사는 흥해교회의 독실...부로서 부군인 최석현 장로를...
입문하게 한 분이였다. 안 권사는...장로 못지않게 곧고 강직하여 자...
번 옳다고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이...협하거나 복종하지 않았다.

유교문화가 여전히 강력했던 당...러한 태도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석...
의 집안은 월성(月城) 최씨로서 전...양반가문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최 장로...
모두 기독교 신앙을 고수함으로써 당시에는 가문에서 일종의 파문을 당했던 상황...
안갑선 권사의 철저한 신앙 태도는 제사를 둘러싼 문화적 갈등을 야기하였다. 안...
제사를 미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교리를 철저히 신봉하여 제사를 거부하였다...
서 안 권사는 시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제사를 거부했다. 유교 전통에 충...
실한 시아버지가 노발대발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안 권사는 끝...제사를 모시...
지 않았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말년에 앓다가 돌아가셨을 때는 미음을 끓이느라고 큰 가...
마술의 밑이 다 빠졌을 정도로 극진히 간호했다고 한다. 즉 효부임에도 신앙에는 타협이...
없었던 안 권사는 자신의 제사도 절대 모시지 말도록 했다.2)

이런 부모님 아래서 최성묵은 어려서부터 독실한 신앙심을 지니게 되었다. 추측컨대

최성묵은 1939년경 의창공립국민학교 초등과(의창은 홍해의 옛 행정지명임)에 입학하여 1944년에 수료하게 된다.³⁾

황국신민화 교육이 지배하던 일제 말의 분위기에서 최성묵의 세대는 불행한 유년기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최성묵은 1944년 경 약 1년 동안 고향의 한 산촌에서 생활했던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일제의 말기적 상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 자료에 의하면 이 산촌 생활은 학병으로 끌려 갈 위기에서 산으로 도피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만⁴⁾ 가족들의 증언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의 발악적 폭압에 위협을 느낀 최석현 장로가 자신과 장남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산촌에서 별목 일을 하면서 피신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의 광기에 휩싸여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신변의 위협이 언제 어떤 형태로 들이닥칠지 알 수가 없었다. 더구나, 최 장로가 소속해 있던 홍해교회는 당시 조선 교회의 주류와는 달리 일제 말기까지 저 적 태도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제는 조선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에 저 하는 종교인들을 투옥, 고문했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태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서 일제 하 홍해교회의 민족운동에 대해 잠시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는 최석현 장로가 왜 이 시기에 피신생활을 해야 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갈 것이다.

홍해교회의 초대 목사인 박문찬 목사는 1916년부터 교회 조사로 시무하면서 1920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부터 1924년까지 목사로 시무하였다. 박문찬 목사는 1917년 홍해교회 부설 명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교육, 문화운동에 힘썼고, 청년운동에 앞장 서 홍해 청년회장, 홍해 기독교청년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홍해지역 역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홍해교회 송문수 장로는 영수 장운환, 장로 최경선, 집사 이봉학, 교인 이기춘 등과 함께 만세시위를 준비하여 3월 11일 장날에 거사하기로 하였으나 일본 경찰에 사전 탐지되어 인쇄물 등을 압수당하고 실패하였다. 이 소문을 들은 주민들과 교회에 모여 있던 교인 1천여 명이 합세하여 시위를 일으켰고 일제 헌병에 의해 해산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송 장로는 체포되어 대령 형무소에 6개월 간 투옥되었으며, 출옥 후에도 이봉학과 함께 3·1동지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1926년부터 1935년까지 홍해교회 목사로 시무했던 박영조 목사도 목회와 함께 일제에 대한 저 적 태도를 지속했다. 이로 인해 당시 홍해 지서 주임이 지서에 출두하라고 요망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문책을 받기도 했다.

일제 말기로 접어들자 교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더욱 심해져서 신사참배(일제의 종교인 신도의 사당에 참배하는 행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평양신학교를 폐쇄하는 등 교회는 일대 수난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기독교회는 지역적 파벌적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친일의 길로 가게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 일찍이 흥해교회에서 장로로 봉직하던 바 있던 노석 김대현 장로(당시 서울 승동교회 장로)는 광산업에 투신하여 모은 많은 재산을 정리하여 그 중 50만원의 거금을 조선신학원(현 한신대 신학전문대학원의 전신)을 설립하는데 바치고 1940년 4월 19일 초대 조선신학원장이 되었다.

태평양전쟁 말기로 갈수록 일제의 종교 탄압은 가중되었다. 일본 경찰은 흥해교회 강단을 ▶뚫발로 올라서서 교인들을 위압하였다. 찬송가의 가사도 천황숭배사상의 입장에서 '왕' '만왕의 왕' '태평양' 등 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찬송가는 금지되었다. 또 세상의 모든 것은 천황의 소유이므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느님 주신 동산' 같은 찬송가도 금지되었으며, 세상 모든 군대는 천황의 군대이므로 '십자가 군병들아' 등 군병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찬송가도 금지되는 등 20여개의 찬송가를 금지하여 찢거나 X 표시를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수시로 찬송가 검열을 받으러 경찰지사로 가야 했다. 부흥회를 할 때도 사전에 지서에 가서 강사명, 설교 용, 기간 등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고 부흥회 기간 중에는 경찰이 강대상 바로 아래쪽 좌석에 앉아 감시했다. 또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으나 거부하자 동방궁성요배(동쪽으로 향해 일본 천황에게 절하기)를 강요하기도 했다.

특히 1943년부터 1949년까지 흥해교회에서 시무한 박순석 목사는 이러한 일제의 억압에 끝까지 저 했다. 박순석 목사는 일제가 창씨개명을 강요할 때 적극 저 했으나 결국 고심 끝에 자신의 성(姓)을 '육부왕(六部王)'이라고 지었다. 일본 경찰들은 박순석 목사가 지나가면 "왕이 지나간다."라고 조롱했다. 이에 박 목사는 "나는 신라 6부 총장의 추대를 받은 왕(박혁거세)이다."라고 하며 당당히 맞섰다고 한다. 또 박순석 목사가 지명수배 당했을 때 초등학교 4학년인 장남을 붙잡아 사다다리에 묶어놓고 그 모친이 보는 앞에서 물고문을 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라고 닦달했지만 그는 실신하면서까지 끝 부친의 소재를 대지 않았다는 일화가 있을 만큼 박 목사는 저 적인 종교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당시 흥해지서 이자와(伊澤) 지서장은 목사, 장로 등의 살생 명단을 작성하여 살해 준비 중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제의 경찰이 패전에 대비하여 저 적인 민족지도자들을 살해할 살생부까지 만들었던 상황에서 흥해교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최석현 장로의 피신은 생명이 위협받는 절박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아닐 수 없었다.

의창공립국민학교 시절 최성묵의 삶을 살필 수 있는 증언이나 기록의 편린을 찾기는 매우 어려우나, 엄격한 황민화교육이 지배하던 학교생활과 일제 말기의 흥해교회의 분위

기, 산촌 생활 등을 감안할 때 그는 일찍부터 시대의 위기를 만끽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유년시절을 보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부모님들의 생활태도는 근검절약하고 매사에 철저한 점은 공손~~집이~~ 있었지만 그 성격은 상당히 대조적이었는데 부친 최 장로가 과묵하고 강직한 분이었다면 모친은 신앙심도 철저하셨지만 성격도 불같으신 분이였다. 자연히 집안에서 모친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친과 모친 사이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면 으레 모친의 높은 목소리가 원인을 제공했던 것 같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그 분위기를 짐작케 한다. 부부싸움이 시작되면 모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부친은 묵묵히 불평, 불만의 소리를 듣고 있다. 이윽고 부친의 인심이 한계에 달하면 부친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던 작은 화로를 높이 치켜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분노를 참으며 꼼짝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화로를 들고 서 계셨다. 그러면 모친도 더 이상의 언쟁을 삼가게 된다. 이윽고 분노가 사그라지면 부친은 서서히 화로를 리면서 자리에 다시 앉았다. 최 장로 맥의 부부싸움은 늘 그렇게 감정으로 시작해도 이성의 우위로 끝나곤 했다.⁵⁾

이렇듯 과묵한 부친과 엄격한 모친 아래서 최성묵의 형제들은 늘 예의바른 태도를 배우고 실천했다. 그렇다고 해서 최성묵이 모든 일에서 부모님을 따르기만 하지는 않았다. 후일 최성묵은 자신의 결혼 문제에서 모친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부모님의 철저한 신앙 자세는 최성묵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일찍부터 체득하게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최성묵이 유년시절을 보낸 일제 말기는 정치적으로 엄혹한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최석현 장로 일가의 삶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경제적 삶에서의 변화였는데 최 장로와 안 권사가 생업을 전환하여 과수 농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최 장로가 과수 농사를 시작한 계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가족, 친지들의 증언에 의하면 1944년 경 자형 정해초의 어장 사업에 불황이 찾아와 새로운 생업을 찾아야 할 상황에 이르렀으며 자식들이 성장함에 따라 안정된 수입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새로 시작한 과수 농사는 주로 사과를 재배하는 것이었는데 당초에는 월성 최 씨 선산과 가까운 곳에 있던 토지를 매입하여 재배를 시작했다고 한다. 이 토지는 안갑선 여사의 친정 쪽 친척으로부터 매입한 것인데 이곳에서 농사를 짓다가 후에는 안강에 있는 형산강 하류의 하천 부지를 5천 평 넘게 매입하여 과수원을 일궈었다고 한다. 이 과수원 땅을 매입할 당시에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던 장녀의 지원도 받았다고 하니 아마 해방 직후 무렵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아무튼 새로 개간한 과수원은 홍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안강이었다. 그래서 최 장

로 부부는 과수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일을 했고, 아이들은 학교를 다녀야 하는 등 부모와 아이들이 상당 기간 떨어져 살았다. 그러니까 남동생, 여동생 모두 다섯 남매만 살게 되었다. 위로 누나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 대신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최 장로 부부는 열심히 과수원을 일했다. 사과 농사는 최 장로가 별세한 이후에도 안 권사 혼자서 일하는 데에는 유명한 사라호 태풍이 불어 과수원이 물에 잠기고 살 수 없게 되었다. 안 권사는 지붕 위로 피신하여 강물에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런 곡절을 겪으면서도 안 권사는 사과 농사를 짓고 아이들 모두 고등교육까지 시켰으니 참으로 훌륭하고 주체적인 여성의

2. 소년시절

1945년 8월 조선은 마침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다.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기 시작한다.

이 해에 최성묵은 의창공립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1월 5일 포 중학교에 입학한다. 당시 학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3년제였지만 전이어서 일제시대 5년제였던 포 중학교는 해방 이후 6년제로 바뀌었다. 홍해교회는 포 까지는 약 20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최성묵은 다른 학생들과 함께 걸어서 입학했다.

이 시기 최성묵의 활동을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당시 홍해교회 박순석 목사는 1948년 1월 7일 미래세대의 신앙교육을 위해 홍해교회 소년회를 창립하였는데 최성묵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포 중학교 3학년 때였다. 1949년, 한국신학대학을 졸업한 젊은 정용철 목사가 시무하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정 목사는 특히 학생활동을 지원, 관리하기 위해 한신대의 김재준 교수에게 젊은 교역자의 파견을 부탁하였다. 김재준 목사는 정 목사의 1년 후배인 강혜순 전도사를 파견했다. 강혜순 전도사는 1949년 12월에 홍해에 가서 초등학생과 중등부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했다.

이때 최성묵은 소년회 회장으로서 강혜순 전도사와 함께 활동했다. 강 전도사의 회고에 의하면, 최성묵은 매우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다. 음악은 성가대를 지휘할 정도로 잘 했고, 예능이든 운동이든 뭐든지 다 잘했다.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술선수범함으로써 일찍부터 지도자의 역할을 해냈다. 겨울이면 교회 사택의 난방에 쓸 장작을 패어 가지

런히 정리해 두거나, 연로한 교회 사찰을 대신해서 청소를 하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다. 하급생들에게는 음악, 영어, 수학 등 크리스마스 때는 하루 밤 사이에 극본을 만들어 연극을 연출하 발휘했다.

그리고 생활은 너무나 소박했다. 강 전도사는 이 무렵에 최성묵의 농담을 기억했다.

“선생님, 단별 신사는 걱정이 없어요. 왜냐고요? 단별 신사는 갈 때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나 뭐 입을까 걱정이 없잖으면 무엇을 입을지 외출할 때마다 걱정을 해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농담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최성묵이 얼마나 소박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다고 한다.

음악에 대한 최성묵의 열정은 일찍부터 나타났는데 1949년부터 선생, 강혜순 전도사와 함께 최성묵이 번갈아 흥해제일교회의 성악부에서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최성묵의 음악적 재능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펼쳐졌다. 그는 포 중학교 악대반(밴드부)의 지휘자로 활동하였다. 그는 악대반에서 트럼펫을 불었다.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를 배설한 최성묵은 트럼펫을 불면서 대열을 바닷가로 이끌곤 했다.

소년회 회장으로서, 성가대의 지휘자로서 그 밖의 모든 일에서 최성묵은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최성묵의 활동을 살펴보면 그가 학교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활동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보이지만 아직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 학적부의 기록에는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 학적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의 성격은 온순, 쾌활하며, 협동심이 있고, 책임감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적극성과 ~~능수능완~~ 솔렷이 있으며, 언어는 명확하고 동작은 활발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흥미란에는 수학, 물리, 화학이 기록되어 있으며, 운동 기타 취미로는 야구와 축구로 되어 있다. 가정 및 환경에는 생활 정도는 하(下), 교육열은 상(上)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학적부에는 1950년을 전후한 5학년과 6학년 때 출석 상황이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5학년 때는 출석해야 할 일수 198일 중 결석이 48일로, 6학년 때는 226일 중 출석일수가 164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전쟁 중의 사건으로 인해 거의 출석이 어려웠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학적부의 기록에서도 엿보이듯이 그는 적극적인 성격에다 리더십이 있어 당시 중학교 까지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상황에서 우익 학생그룹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쟁이 발발하고 전선이 포 으로 이동해 오자 학도의용대를 조직하여 리더

한 데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당시 홍해 학도대의 노래는 최성묵이 작사하고 최성묵이 부른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가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높은 비학산 정기 북천이 흐르고
우리는 자라노라 진리의 곳에
쓰고 읽고 외치면 나가 싸워서
무궁한 대한의 기둥이 되리
아 - 아 - 우리는 대한의 젊은이
조국 건설 홍해 학도대

당시 최성묵의 정치적 입장은 전쟁 체험을 기록한 육필 원고를 통해 표출된 강력한 반공사상을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성묵의 위치는 당시 중학생의 신분이었음에도 면장이나 다른 어른들이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를 학생으로 취급하지 않고 ‘최 선생’으로 호칭했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 시기에 최성묵은 2살 연하의 김순이를 홍해교회에서 만나 사랑하게 되었다. 두 사람의 사랑은 6·25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주변의 누구도 눈치 채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그리고 뜨겁게 익어갔다. 김순이는 홍해교회 소년회 멤버가 되어 회장인 최성묵과 자주 교회에서 만나는 사이였으나 봉건적인 집안 분위기와 자유연애를 금기시하는 당시 사회 분위기 때문에 따로 만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성경책 속에 연애편지를 끼워 몰래 주고받을 따름이었다.

최성묵이 포 중학교와 홍해교회에서 활동하던 1945년과 1950년 사이에 한반도는 미소 양국에 의해 분단된 상태에서 1948년 남북한에 각기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고 이는 전 세계적 냉전의 개시와 함께 동족상잔의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다. 1949년, 국공 전의 결과 공산당의 승리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촉매제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마침 1950년 6월 25일, 전쟁은 발발하고야 말았다.

3. 6·25전쟁의 발발과 학도의용대6)

전쟁 초기에 인민군은 빠른 속도로 진격하여 남한의 많은 지역을 석권하였으나 미군의

개입과 국군의 재정비로 전쟁은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8월 초, 영덕·홍해 지역에서는 인민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홍해의 학생들은 홍해학도의용대(興海學徒義勇隊)를 조직하여 계몽과 정보수집, 오열(五列)의 활동을 경계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최성묵은 홍해학도의용대의 부대장(副隊長)이었다.

1950년 8월 10일 학도의용대는 대원 150명을 50미터 간격으로 신광, 포, 청하에 이르는 길에 배치하여 인민군의 침입을 알리도록 했다. 이 날은 밤새 포화소리와 붉은 불꽃이 밤하늘에 피어오르고 함포의 탄환이 별뿔처럼 북쪽으로 날았다.

8월 11일 아침 7시, 인민군이 홍해를 향해 진군하고 있다는 정보를 접하자 최성묵은 먼저 집과 교회 목사님께 상황을 알린 후 김순이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김순이네 집은 이미 피난을 떠난 후였다. 최성묵이 김순이의 집으로 가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최성묵과 김순이가 연인 사이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한다. 최성묵은 몇몇 학생들과 함께 홍해 지서로 가서 인민군과 전투를 하게 되지만 곧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인민군의 포위망을 피해 국군과 함께 배로 후퇴할 희망이 있으리라 여겨 영덕 방면으로 갔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절망 속에서 홍해로 되돌아 왔다.

8월 12일, 일행과 헤어진 최성묵은 남송(南松)이란 마을에서 피난 온 가족과 정용철 목사 그리고 교우들을 다시 만났다. 그날 오후 학도대 간부 몇 사람이 찾아왔는데 홍해의 지방 좌익이 인민위원회와 치안대를 조직하여 인민군의 정치공작대를 기다리고 있다는 정보를 전했다. 그러자, 학도대 대장 최봉한이 학도의용대 사무실에 그대로 두고 나온 대원 명부가 인민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자 그 자리에 있던 학도대원들은 모두 큰 고민에 빠졌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최성묵이 절망에 빠진 동료들을 격려했다. 최성묵은 형산강과 낙동강 방어선이 최후의 방어선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머지않아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원 명부는 일 안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반드시 빼낼 것을 약속했다. 그렇게 동료들을 안심시켜 보낸 후 최성묵은 밤새 명부를 빼낼 방법을 고민했다.

8월 13일, 최성묵은 중학교 1학년생인 동생을 불러 학도의용대 사무실에 가서 대원 명부를 빼오라고 말했다. 동생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위험성이 적었다. 하루 종일 초조와 불안 속에 기다린 끝에 저녁 무렵 동생이 돌아왔다. 그의 교복 안에서 태극기와 대원 명부가 나왔다. 이로써 학도의용대원의 명단이 인민군의 손에 넘어갈 위기를 모면했다.

8월 15일 아침, 최성묵은 정용철 목사와 함께 해방기념일 축하예배를 올렸다. 피난민으로 들어찬 교회에서 초라하지만 마음을 다해 민족해방을 기념했다. 그 직후 미군 제트기

의 폭격을 받았다. 그 폭격은 후퇴하는 국군을 엄호하는 미군에 의해 이뤄졌던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 사이에 피난민들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8월 16일, 아침식사 후 마음 속에 이상한 충동을 느낀 최성목은 밖으로 나섰다. 금장리에 피난가 있는 김순이를 찾아 나섰다. 최성목은 마을이었다. 최성목은 김순이를 보러 갔지만 걸으려는 김순이를 막으려고 가장했다. 김순이의 부친은 매우 봉건적인 사람이었고, 최성목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 김순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러나 색하지

“우째 왔노?”

김순이 부친의 물음에 최성목은 지금 바닷가에 정박한 배길로 후퇴를 기다리고 있는데 김순이 오빠도 거기 같이 갔으니 오빠도 하러 왔노라고 말했다. 김순이의 부친은 하나 뿐인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다. 절대로 자신의 곁을 떠나게 할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약간 통명리였다. 최성목은 알아서 책임질 것이니 너나 빨리 피신하라고 잘라 말했다. 최성목은 김순이를 데리고 그 집을 나섰다. 식구들이 배웅 차 문 밖으로 나왔을 때 김순이 울기 시작했다. 최성목은 잠깐 물 좀 마시고 나오겠다 하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최성목은 급히 무언가를 김순이에게 전해 주면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지만, 웬만큼 영덕과 흥해 접경 지역의 교회가 있는 곳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라는 김순이를 밖으로 나갔다. 김순이는 받은 것을 급히 피난보따리 속에 숨겼다. 나중에 김순이는 매우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과 편지였다.

8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최성목과 피난민들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고 있었다. 피난길을 가리지 않는 미군기의 폭격과 함포사격, 인민군과 지방 좌익들의 활동, 그들의 눈을 피해 산과 들로 숨어 다녀야 하는 긴장의 연속이었다.

4. 생사의 기로에 서서

8월 21일, 정용철 목사의 제의로 정 목사, 김종수, 이영호, 최성목 네 사람은 아침에 바닷가로 피난을 갔다. 거기서 일행은 모두 인민군 정치공작대와 지방 좌익들에게 적발되어 40여명의 우익인사들을 연행하는 대열에 끌려가게 되었다. 최성목은 하느님의 가호를 받고 또 빌었다. 그들은 바닷가의 한 마을로 끌려가서 간단한 조사를 받았고, ‘조막손’이라는 별명의 동해지대 빨치산대장에게 호명 받은 최성목 등 열대여섯 명은 다시 험한 계곡으로 끌려갔다.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한 일행은 모두 절망과

공포 속에 빠졌다. 계곡 속에서 최성묵 등 네 명이 남았는데 먼저 최형택이라는 의사가 조막손의 총을 맞고 즉사하였다. 그리고 이응호라는 교원은 운 좋게 방면되었다. 최성묵과 김종수 두 학생이 남았고, 조막손은 일본도를 빼들고 외쳤다.

“너희는 인민의 적이다. 인민의 이름으로 여기서 최후의 심판을 받으라.”

최성묵은 갑자기 용기가 솟궂쳐 맞받았다.

“나는 여기서 심판받을 수 없습니다.”

“무

견딜 수 없는 ~~중이 온 몸~~

노파를 만나게 되었다. 그

그러나 해가 지고 밝은

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

생각했다. 최성묵은 별빛이

를 드리고 찬송을 불렀다.

을 것이라면 이 무서운 고

벗어날 수 있다면 남은 생은 하

그러나 기다리는 죽음은 쉽게

성묵에게는 참으로 긴 밤이었다.

리기를 반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몸

동해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다. 노파는 공습과 함포 때문에 부

했다며 그를 바라보며 혀를 찼다. 그

처지를 전해 달라고 애원했다. 노파

오전 9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요

아우, 누이동생, 교회의 강 선생이

지나간 후 형제들은 정용철 목사님의 침대를 가져와 그를 눕히고 이동을 시작했다. 운반

도중 갑자기 총탄세례가 쏟아져 외딴 대밭에 몸을 숨겨가며 정오가 되어서야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남천 제방에 도착했다. 옷을 찢어 소독한 후 아우가 의사를 데려왔다. 그는 상

처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더니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렸다. 오후 3시경, 약을

누이와 동생이 머리는 산발한 채로 땀투성이가 되어 약을

도 가 버리고 약도

그 때, 조막손과 치안대원 6, 7명이 최성묵이 누워있는 천막으로 들어왔다.

“이 놈, 참 모진 놈이다.”

조막손은 무서운 얼굴로 총을 들어 최성묵을 겨누었다. 최성묵의 누나와 아우가 총신

을 붙잡고, 조막손의 손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최성묵은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마음속으로 “하느님, 저를

다시 한 번 뺏어주시옵소서.”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치안대원 중에는 그의 죽마고우도 있

었고, 포 중학 동기동창생도 있었다. 그들은 최성묵에게 상처가 어떤지 물었다. 최성묵

은 말없이 눈물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막손은 검은 색안경을 끼고 최성묵을

뚫어져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때 최 씨 성을 가진 지방 출신의 치안대원이 말했다.

“동무, 이승만과 그 놈의 대한민국이 나쁜 게지 이 학생이 나쁜 게 아니잖소? 그만 둬

시다.”

조막손은 무슨 말인지 몰랐고, 손가락과 와 백포를 걷고 상처

“모진 놈이다.”

그는 상처에 손을 대지 않았고, 조막손의 얼굴에 놀라움

“호박을 걸러 버

그 말을 남기고는 돌아 나갔다.

최성묵은 하느님만이 공산주의자로만 생각했던

의 민족적 양심이

5. 인민군

다음 날인 8월 23일, 평양의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다. 제트기 날아오고, 함포사격이 울렸다. 간혹 빛나간 포탄이 홍해에 떨어 에 피난민 모두가 죽었다. 그럴수록 인민군 부상병들은 늘어났 천막을 뒤져 남자 의용군으로 징발했다. 최성묵은 조막손이 말한 상처에 발랐으나 증은 잔과 다름없었고 몸은 평소의 두 배로 부어 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해서 물은 목만 추기고 뱉어 야 했다. 식욕도 공복을 채웠다. 그 사과는 그의 누나가 위험을 무릅쓰고 홍해의 과 었다. 그러나 약은 고사하고 호박조차 하기 어려웠다. 더 나 호박 무더운 날씨에 더기가 끓고 심한 악취가 났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최성묵은 고뇌를 거듭했다.

8월 24일, 최성묵은 가족들에게 중대한 제안을 했다. 언제 국군이 알 수 없고, 약도, 의사도 없는 형편에서 중한 상처를 방치한다면 며 니 차라리 곡강(曲江) 터널⁸⁾에 있는 인민군 야전병원에 미군 폭격으로 고 입원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했다. 그의 제안에 가족들은 모두 하 염없이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 최성묵은 설사 국군이 오더라도 그 전에 치안대에 의해 죽을 지도 모르니 속 시원히 치료나 받게 해 달라고 간청하였다. 형제나 이웃들 모두 키지 않는 선택이었으나 다른 방도가 없었으므로 마지못해 그의 청을 받아들였다.

8월 25일, 형제와 친, 이웃의 도움을 받아 최성묵은 담가에 실려 인민군 야전병원으

로 향하였다. 비가 려 미끄럽고 좁은 논두렁길을 3km 이상 이어갔다. 목적지를 1km 남짓 남겨두고 해졌다. 그 바람에 몇 번 주저했으나 가지 않을 수 과 조막손에게 변명해 주었던 최 씨를 만났다. 그 북쪽 입궤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환자들의 신은지는 터널 안은 상상을 넘는 참상을 이루고 있었다. 1명과 간호사들을 데려왔다. 최성묵은 심한 공포에 고 문제 삼는다면 신분이 탄로 날까 두려웠다. 군의 “어떻게 해서 왔는가요?”

“미군의 폭격으로 기총을 맞았습니다.”

최성묵의 누나가 말했다. 군의관은 상처를 보더니 최성묵은 어두컴컴한 굴속에서 찌어가는 상처 부위를 비로소 살아난 듯했고, 삼복더위에도 터널 속은 시원 “반드시 회복시켜 자기 밭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가시오.”

군의관이 말했다. 누나는 치료를 위해 끝까지 남하에게 명령하여 제2터널로 옮기도록 했다. 같이 최성묵은 제2터널로 이송되었다. 이송 도중 갑자기 서 기총을 퍼부었다. 최성묵의 주변으로 총알이 마뽀뽀하며 제1터널의 입궤에 폭발하였다. 조금 전까번 생명을 궤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에 실려 제2터널로 들어가니 그 속에는 코를 찌르를 환자들이 2열중대로 누워있었다. 거기서 그는 간이 맞지 않는 국에 주먹만한 쇠고기도 들어있었고 그리고는 잠이 들었다.

어렴풋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는 터널 밖 산 실렸다. 차머리를 보니 북쪽으로 향하고 있어 환자 잡은 덕에 그는 맨 먼저 트럭에 실리게 되었던 것 30여 km를 폭주했다. 트럭의 진동에 따라 상처의 함소리가 그칠 새가 없었다. 트럭은 영덕(盈德)에 환자들을 20여명의 일행은 추위와 모기떼에게 시달리면서 보리짚 속에 들어 있다가 몇 시간 후 군의관과 간호사가 도착하여 간단한 진료를 한 후 다시 담가에 실려 방으로 옮겨지자 잠이 들었다.

8월 26일, 깨어나 보니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몸을 돌켜주는 것이었으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에 다스린 일어났다. 밤9시경, 열행은 트럭에 실려 다시 부상했다. (海)의 어느 아담한 마을에 일행을 려놓았다. 한 집에 일곱 마난한 농가의 한 방에 들게 되었다. 이 마을에서 최성묵은 9월 한 번씩 오는 군의관과 간호사들이 그의 상처가 상당히 좋아졌도 증진되어 밥도 맛있게 먹었고 상체의 움직임도 훨씬 수월해졌다. 인민군 부상병들은 일어나면 군가를 합창하고, 시간이 나면 씬 없이 최성묵에게 노래를 권했으나 힘이 들어 못 부른다고 거절하였다. 또 그 군, 미군에 대한 소감을 묻기도 했다. 최성묵은 거짓으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하고 나서는 마음속으로 하느님께 용서를 빌기도 했다.

9월 2일, 인민군 부상병들이 무렵, 고향의 부모 형제들의 모습이 못 견디게 그리워지면서 최성묵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 렸다. 그리고 나지막한 소리로 찬송가를 불렀다. 그러자 부엌으로 하는 문이 열리면서 스무 살쯤으로 보이는 아가씨가 나타나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방금 부른 찬송가를 이 여자는 알고 있었나. 그는 갑자기 두려워 간이 콩알만큼 좋아들었다. 최성묵은 뚫어지게 쏘아보는 여자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이윽고 여자가 입을 열었다.

“낮 씻을 물 드릴까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그로서는 영문을 알 수 없는 물음이었다.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여자는 대야에 물을 길어 와서 씻기를 권했다. 그는 힘든 몸을 억지로 일으켜 십여 일 간 씻지 못한 얼굴을 떨리는 손으로 문질렀다. 이 정도의 동작도 그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다. 여자가 주는 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수건에서 얼굴을 떼기 전에 여자가 물었다.

“당신, 예수를 믿지요?”

두려워하던 질문이었다. 가까이서 자고 있는 인민군이 듣지나 않았나 무서웠다.

“예, 아니올시다. 조금 믿었습니다.”

허둥대면서 두서없이 대답했다. 그러자 젊은 아가씨는 문턱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이 영해 아가씨는 인민군이 들어오자 흥해로 피난을 갔는데 교회에서 최성묵을 본 기억이 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세례 받은 교인이라고 꺾속말로 전했다. 최성묵은 너무나 기뻐 자신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가씨는 그를 위로하면서 이곳에는 교인도 몇 있으니 여기 있으면 약이라도 해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몇 대의 환자 수송 차량이 왔고 환자들의 승차를 독촉하였다. 최성묵은 잠시 갈등에 빠졌다. 남아서 연명하고 싶은 생각과 인민군을 따라가서 온전히 치료

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상충했지만 곧 그들을 따라가기로 하였다. 교인인 아가씨와 동네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트럭은 북으로 떠났다. 헤드라이트 켜지 않은 트럭은 차가운 밤공기를 뚫고 첩첩산중을 질주하였다. 대부분 중환자물고기를 트럭 위의 인민군들은 난폭한 운전으로 짐칸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치고 몰리면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울부짖었다. 12시가 지나 차가 정지한 곳은 영양(英陽)이었다. 거기는 파괴된 교량을 북쪽 하느라고 지방민들이 야간작업을 하는 강변이었다. 정지한 트럭 위로 군의관이 올라와 한 사람씩 손목을 만져보더니 운전사를 불렀다. 트럭의 동요로 두 사람의 환자가 숨을 거둔 것이다. 군의관과 운전사는 두 환자의 시체를 강물에 던져 버렸다. 비정한 처사였다. 트럭은 다시 달려 영양을 지나 안동으로 향했다. 안동 입구의 낙동강 다리가 파괴되어 도강이 어려웠으나 트럭은 급상승과 급강하를 반복하며 무사히 도강에 성공하였다.

안동(安東)에 도착한 후송 트럭은 다시 안동을 떠나 춘천(春川)으로 달렸다. 낮에는 미군의 폭격을 피해 피난 떠나고 사람 없는 빈 집에 들어가 남은 양식을 찾아 밥을 지어 먹고 밤으로만 달리다 보니 춘천까지는 수일이 걸렸다.

일행은 춘천 인민군 야전병원에 도착했다. 이 무렵 미군의 폭격은 더욱 심해져 야전병원도 안전하지 못했다.

6. 다시 남으로

어느 날인가부터 인민군은 더 이상 환자를 트럭으로 후송할 수 없으니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알아서 걸어가라고 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함께 미군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었다. 인민군의 패주는 무질서했다. 그 혼란 속에서 최성묵은 흥해를 향해 남쪽으로 가기로 걱정했다. 더 이상의 치료를 인민군에게 기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최성묵은 아직 힘든 몸을 막대기에 의지해 겨우 일어서서 힘든 발걸음을 떼어 보았다. 겨우 걸을 수는 있었으나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웠다. 최성묵은 신변의 안전을 위해 우선 죽은 인민군 시체에서 옷을 벗겨 인민군복을 입었다. 그리고 북쪽으로 도주하는 인민군 부대를 만나면 숨고 어두워지면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남쪽을 향해 걸었다.

남으로 향해 걷기 시작한 날 밤, 달빛이 흐린 산 속을 걷다가 쉬어가고 싶어 보니 리 (산돼지 지킨다고 잠만 자는) 산막이 보였다. 반가워서 산막으로 다가가니 갑자기 안에서 “누냐?”하면서 총이 튀어나왔다. 보니 인민군의 다발총이었다. 소속 부대를 묻는 말에 야전병원에서 주위들은 인민군 부대를 대고 위기를 넘겼다. 산막 속에는 2명의 인민군이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산막에서 3명이 잠을 자고 이튿날 인민군들이 함께 북으로 가자고 할 때 최성묵은 몸이 성치 않아 조금 더 쉬고 가겠다고 하여 그들이 떠난

후 다시 남으로 향했다. 하루에 10리도 가기가 어려웠다. 그런 걸음으로 며칠 걸었다. 그 사이에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남루한 인민군복을 입고 걷다 보니 허리는 휘어지고 얼굴과 몸은 피골이 상접하여 보였다. 길을 재촉하던 최성묵은 영덕(盈德) 근처에서 국군복을 입은 한 사람에게 신원을 물었고 최성묵은 자신은 인민군이 아니냐고 물었고 그 사람에게 신원이냐고 물었다. 그 사람에게 신원이냐고 물었다. 최성묵이 정확히 외자 이번에는 찬송가를 불러주면 허리를 움켜쥐고 죽을 힘을 다해 찬송가를 불렀다(그의 친구도 찬송가를 불렀던 적은 없었다고 후일 최성묵은 회상했다). 그 사람에게 가서 재워주고 다음날 국군복으로 갈아입힌 후 남쪽으로 데려다 주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약간의 용돈까지 주었다. 최성묵은 감사사를 표했다. 그리고 포까지 간 후 밤새 걸어서 새벽

7. 혈육을 찾

한편, 8월 25일 최성묵은 두고 온 누나와 형제들은 미군의 폭격이 심해지면서 점점 불안해하는 소문으로는 인민군 야전병원에 있던 환자들을 밤에 트럭에 싣고 옮기고 거기서 좀 나은 사람들은 다시 영덕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최성묵은 인민군 야전병원에 수용되었다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최성묵의 누나가 가족을 찾으러 가자고 의논 중이었다. 바로 그 때 김순이가 나타났다. 김순이가 최성묵이 총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모르다가 기회를 틈타 최성묵의 피난처로 달려왔던 것이다. 최성묵의 누나가 김순이에게 동행을 제의하자 김순이는 두말없이 따라나섰다. 그래서 할머니를 포함한 세 사람의 여인이 길을 가다가 어두워지면 농가의 마당을 빌려서 잠을 잤다.

보경사에 도착하니 인민군이 떠발총을 들고 “어디서 왔느냐?”고 가로 막았다. 김순이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인민군을 환영하는 사람들이다”고 말하고, 환자를 찾으러 왔다고 했더니 ~~수과시켜 주었다.~~ 보경사로 들어가 보니 반 병에 보리쌀을 켜 위에 많은 환자들이 수용돼 있었고, 상태가 다소 나은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와 나무 밑에 쉬고 있었다. 그러나 세 여인이 경로를 다 돌아보아도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세 여인은 다시 영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8월의 찌는 듯한 더위 속을 걷다보니

또 하루 해가 저물었다. 그들은 바닷가 농가의 마당을 빌려 잠을 잤다. 무서운 바닷가 모기가 달려들어 온 몸을 물어뜯었다. 아침에 다시 영덕을 향해 걷기 시작하여 한 참을 가다가 다시 인민군을 만났다. 그들에게 물어보니 “영덕으로 가도 소용없다. 환자들은 다 북쪽으로 후송했다.”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영덕으로 가더라도 찾는 사람을 만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부득이 발길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되돌아 온 지 얼마 안 돼 홍해는 다시 수복이 되었다. 경주 과수원에서 애태우던 부모님들과 최성묵의 형제들이 다시 홍해에서 만났지만 최성묵의 소식은 알 길이 없었다. 게다가 홍해의 집은 폭격을 맞아 날아가 버렸다. 그래서 최성묵의 고모댁에서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다. 고모댁은 당시 천석꾼으로 잘 살았고 집도 매우 넓었기 때문에 우선 지낼 만 하였다.

8. 기적의 생환

그렇지만 생사조차 모르는 최성묵을 생각하면 부모 형제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최성묵에 대해 떠도는 소문들은 한결같이 그가 죽었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당시 야전병원으로 쓰던 터널 입[㉠]가 폭격으로 박살이 났는데 거기서 살아났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더[㉡]나 죽은 것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있었다.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거라는 체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는 했지만 차마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가족들은 한 가닥 기적 같은 소식을 기다리며 그 해 가을을 다 보 고 겨울을 맞았다.

그러나 기다리던 소식은 오지 않았고 마침 11월 15일, 부모님들은 최성묵이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동네에서 삼을 빌어다 놓고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곡강터널 입[㉠]로 가서 유골이라도 수습해 장례를 치르기로 결심했다. 최성묵의 부모님은 일 아들의 장례를 치를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밤새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다 어렴풋이 선잠이 든 새벽녘에 어디선가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아버지, 성묵이가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최성묵의 혼령이 부르는 소리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꿈속처럼 몽롱한 소리가 몇 차례 반복된 후 뒤이어 문간방에 살던 복남이 엄마가 안방을 향해 외치는 소리를 듣고야 비로소 부부는 대문간으로 달려 나갔다. 문 밖에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새벽의 희뿌연 대기 속에서 입김을 뿜으며 서 있었다.

9. “원수를 사랑하라.”⁹⁾

최성묵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식은 그 날로 온 홍해에 파다하게 퍼져갔다. 그러자 곧 바로 홍해, 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이 미군들과 함께 마을로 찾아왔다. 그들은 먼저 최성묵의 집을 찾았다. 최성묵이 불편한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맞았다. 미군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국군 장교가 최성묵이 겪은 고초를 위로한 후 그 모든 것이 빨갱이의 소행이므로 그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인민군 점령기간 중에 인민군에 부역한 자들을 지목하라고 요궴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을 마을회관으로 전부 모으도록 이장에게 명령했다. 군인들은 집을 나서면서 최성묵에게 곧 마을회관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 때 부친 최 장로는 아들을 불렀다.

“성묵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니라.”

그러자, 최성묵의 눈앞에 지난 8월에 일어났던 일들이 영사기의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죽어간 친궴 종수의 얼굴도 순간 떠올랐다. 조막손과 같이 몰려다니던 친궴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짧은 순간, 긴 침묵이 흘렀다.

“예, 제 뜻도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최성묵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걸음으로 마을회관으로 가니 거기는 마을의 청장년들이 대부분 모여 있었다. 국군 장교가 최성묵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인민군에게 부역한 자를 가려라”고 다시 독촉했다. 최성묵은 천천히 힘든 걸음을 옮기면서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조막손과 함께 있던 청년들도 눈에 띄었지만 최성묵은 조용히 마을회관을 한 바퀴 돈 후에 장교에게 말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는 부역자가

그런 몸으로 최성묵은 집에 돌아온 얼마 후, 김순이의 집을 찾았다. 최성묵은 김순이의 오빠를 만나러 온 것처럼 해서 김순이를 보러 왔던 것이다. 놀란 김순이가 최성묵을 보니 모양이 너무 변해서 무서울 지경이었다. 최성묵의 몸골이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 그런 몸으로라도 최성묵은 주일마다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그 무렵 최성묵이 얻은 별명이 '골자(骨子)'였다. 뼈 골자에 아들 자자를 써서 뼈만 남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었다.

이때는 최성묵과 함께 바닷가에서 인민군 정치공작대에게 함께 체포되었던 정용철 목사가 무사히 피난에서 돌아와 시무하고 있었다. 정용철 목사는 당시 처형 대상에서 운 좋게 빠졌는데, 후에 회상하기를 직업을 몰아서 “교역자(敎役者)입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정치공작대는 그것을 “교육자(敎育者)입니다”로 알아듣고 그렇게 분류한 것 같다고 했다.

홍해교회는 전쟁 중에 미군 비행기의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 상태였다. 그래도 교인들은 폐허가 된 교회터에 모여 노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는 홍해중학교의 교실에 임시 예배 처소를 정하고 예배당의 복구에 노력을 기울였다.

최성묵은 불편한 몸으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면서 건강 회복에 힘썼다. 이듬해 봄이 되면서 최악이었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어 갔다. 1951년 봄 학기에 최성묵은 조금씩 학교에도 나가게 되었다. 졸업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 최성묵은 중학교 졸업과 함께 대학 진학을 결심했다. 그는 서울대학교 문리대 수학과를 지원했다. 평소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잘 했던 터라 별다른 고민 없이 결정했다. 그 때 서울대학교는 임시수도 부산으로 피난을 가서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마침 서울로 시집을 가서 교편을 잡고 있던 큰 누나의 가족들이 모두 부산으로 피난을 와 있었다. 최성묵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큰 누나의 집에 머물면서 서울대학교 입학시험을 쳐서 합격했다. 최성묵의 서울대학교 합격은 당시 홍해에서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거리에 걸렸다. 최성묵은 홍해에서 서울대학교를 간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1951년 7월 18일, 포 중학교를 졸업한 최성묵은 바로 그 해 9월 1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수학과에 입학했다. 그러나 최성묵은 입학과 함께 휴학하고 다음 해인 1952년 1, 2학기를 이수하였고, 1953년 1학기과 1954년 1학기까지만 이수하고 휴학을 거듭하다가 1957년 3월 미등록 제적되었다.

이처럼 최성묵의 서울대학 생활은 등록과 휴학의 반복이었고 결국은 미등록 제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렇게 휴학을 반복한 이유는 학비의 조달 때문이었으나 끝 졸업을 하지 못한 것은 그의 결혼과 관련이 있다.

아무튼 최성묵은 이 무렵에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해서 과외를 했고 학비가 마련되면 등록해서 공부를 계속했다. 부산으로 피난 와 있던 누나 집에 기숙하면서 당시 부산 덕산 기슭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다녔다. 서울대학교는 1953년 9월 환도하기

전까지는 전시연합대학을 ➤성하여 부산에 본교를 두는
한편 김순이도 1951년에는 부산으로 와 있었다. 부산은
분위기였고 학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웠다. 마침 오빠가
일하게 되면서 김순이도 오빠를 따라 부산으로 가게
열했지만 피난 수도 부산은 그래도 제법 흥청거렸다. 김순이
은 많지 않았다. 무얼 할까 하고 살펴보니 양재학원
는 남성타이프학원이라는 곳에 등록하여 영문 타자
는 없었지만 알파벳을 보고 그대로 치는 것은 어렵지
합격하고 나니 당장 써 먹을 일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홍해로 와 있는데 어느 날 외사촌 오빠가
력서만 써 보면 친 ➤가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의
었다. 당시에는 교사가 부족해서 중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었던 시절이었다. 김순이는 이력서를 냈고 개원국민학교
는 장기에서 ➤룡포로 넘어가는 바닷가에 있던 조그마한
들도 아이들도 순박하고 정이 넘치는 곳이었다. 이곳에서
김순이가 개원국민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최성묵은
사람들에게는 사촌 오빠라고 둘러댔다. 그런 날에는
동안 산책하면서 쌓여 있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최성묵을 만나기도 했다. 김순이는 아침 일찍 서울에서
가는 전차를 탔다. 전차에서 내려서 학교 정문으로
대학생들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가 최성묵을 만났다. 그럴 때면 둘은 송도 바닷가를
걸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누었다. 때로는 김순이가 최성묵의 옷을 사주기도 했다. 학생 신
분인 최성묵보다는 교사 월급을 받는 김순이가 형편이 훨씬 나왔기 때문이다.

1953년경 김순이는 근무하던 개원국민학교를 그만두고 포항에 있는 외사촌 오빠의 타이
피스트로 일자리를 옮겼다. 개원국민학교는 집과 거리가 멀어 부모님들이 걱정하시
던 바였는데 포항의 외사촌 오빠는 김순이가 책임자로 와 있어서 좋았다. 김순이가 포항
로 직장을 옮긴 후에도 서로 오가며 둘 사이의 사랑은 그렇게 깊어갔다. 고향 홍해에서
도 두 사람의 연애는 이미 소문이 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홍해에서는 자유연애란 놓고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유교적
인 습속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던 경상북도 농촌에서 젊은 남녀 간의 자유연애는 일종의
사회적 금기였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홍해교회의 신도들은 두 사람의 연애를 인
정하고 축복해 주었다. 두 사람 모두 순결하고 성실한 청년들이었다 교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성묵은 교회 성가대의 지휘자로서 열심히 노력, 봉사했다. 흥해교회의 교우 김운조의 회상에 의하면 최성묵은 성탄축하예배를 위해 “할렐루야”, “주의 영광” 어려운 대곡을 한 달 동안 맹연습을 거듭하여 높은 수준으로 화음을 이루어 냈다. 게 되기까지 최성묵은 연습 때는 사정없이 틀린 것을 지적하고 꾸짖었지만 연습이 면 재치있는 유머로 성가대원들을 웃게 만드는 탁월한 리더였다.

11. 최석현 장로의 소천과 흥해교회의 분립

6·25전쟁의 휴전을 앞둔 1952년 무렵에 최성묵의 주변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부친 최석현 장로가 소천(별세)하신 일이고, 공적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에 교리 문제 등을 둘러싼 분열이 발생하여 흥해교회도 두 개로 분립하는 사태가 난 것이었다.

최석현 장로의 소천은 최성묵과 가족들 뿐 아니라 교회 신도들과 이웃들에게 큰 이었다.¹⁰⁾ 최 장로는 아직 미혼의 자녀들을 부인에게 맡기고 노환으로 소천하셨던 다. 최 장로의 소천은 최성묵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평소의 침을 더욱 명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50년 겨울, 부역자를 가려 라는 군경의 독촉에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일깨워주었던 최 장로의 깊은 뜻은 묵이 평생 되새기며 사는 삶의 지표가 되었다.

또 한 가지 큰 사건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분열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분 1947년 제33회 대궐총회에서 시작되었다. 대궐총회에서 신학교육 이념과 방법에 논쟁이 전개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조선신학교 학생 51명이 김재준 교수의 ‘성경문자설(聖經 字有誤說)’ 등의 이론이 바른 것인지 총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데서 비롯되었다. 총회에서는 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사한 결과 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결 총회에 보고했다.

김재준 교수의 ‘성경문자유오설’은 종래의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이나 ‘성경문자설(聖經 字無誤說)’이 성경의 글자 하나 하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니 획수 하나라도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고 글자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신학사상에 대한 론을 제기한 것이다. ‘성경문자무오설’을 신봉하게 되면 성경 연궐의 자유성을 잃게 로 성경의 글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용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궐(贖)사건에 더 큰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세계교회 신학의 주류는 신정주

의와 자유주의 신학이었는데 ‘성경문자유오설’은 반대하는 보수적 교계세력은 1951년 제36회 부총회 취소하였고, 1952년 제37회 대총회에서는 다음

즉, 조선신학교 졸업생은 장로회 목사로 안수 제명한다, 조선신학교의 두 교수 사상을 지지하는 총회 총대 35명은 1952년 7월 ‘대한예수회장로회의 결의를 철회할 것을 요’하였다. 이로 인해는 교회와 반대하는 교회로 분열되어 큰 파문을 사 등이 제38회 호헌총회를 개최하고 1954년에 기독교장로회의 신학적 입장은 첫째, 성경의 것이고, 둘째, 교권주의를 배제하며, 셋째, 편협한 협력·병진하려는 에큐메니칼(세계교회연합) 정신 이러한 교단의 대립은 당연히 각 지역 교회에 해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1950년 6월 9일, 김재준 지한 정용철 목사에 대해 시무 정지를 결의하였다 인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그 결의에 승복하지 결의를 지지하는 하동백 장로와 30여명의 교인들 홍해중앙교회를 세우게 되고, 정용철 목사를 비에 대지를 꺾입하여 홍해제일교회를 세워 한국기 이렇게 홍해교회가 분립되는 과정에서 최성목 하여 앞장서서 교인들을 홍해제일교회로 이끌었다

12. 부모님이 불참한 결혼식

최성목은 1953년 1학기를 부산에서 다닌 후 2학기를 서울대학교는 서울로 옮겨갔고 학비와 생활비를 그의 관심은 점점 더 신학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을 바치겠다는 서약을 한 바도 있고 교회활동을 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한 것은 목회를 하더라도 일반 과학의 지식을 풍부히 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지 졸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또 한가지 당면한 문제는 김순이와의 결혼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십대 중반에 다가서

고 있었다. 특히 김순이는 집안에서 결혼하라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들어오기도 했다. 당시 농촌에서 여성은 스무 살이 넘으면 과년했다. 결혼의 압박을 칠 때였다. 더 이상 결혼을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다. 문제는 양가 모두 부모님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데 있었다.

최성묵의 모친 안갑선 집사는 최성묵과 김순이의 연애부터 심히 못마땅하게 보았고 더구나 결혼은 절대 반대였다. 서울대학교까지 입학한 잘난 아들이 시골의 보잘것없는 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매우 불만족스러웠던 것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최성묵은 용기를 써서 부모님께 결혼 의사를 밝혔다.

“어머니, 저는 우리 교회 김순이하고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가 뭣이 부족해서 순이 같은 애하고 결혼을 해야 하느냐? 얼마든지 더 좋은 규수가 청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허락 못한다.”

모친은 완강하게 거절했다.

“저는 더 좋은 규수도 싫습니다. 저와 순이는 오래 전부터 장래를 약속한 사입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너희들끼리 부모의 승낙도 없이 한 약속을 누가 왜 인정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어머니, 결혼은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어머니 뜻대로 따를 것이니 결혼만큼은 제 뜻대로 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머니의 거부는 강력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뜻을 거슬러 본 적이 없는 아들의 고집이라 더 용납하기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어머니와 아들의 신경전으로 집안의 분위기는 무겁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갔다.

김순이의 집에서는 부친의 반대가 거셌다. 부친은 유교적 가치관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모친은 교인이었고, 최성묵의 사람됨을 알기 때문에 반대가 없었지만 부친의 고집을 꺾기는 어려웠다.

“나는 예수쟁이를 사위로 삼을 생각이 없으니께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좋은 데서 얼마든지 중신(중매)이 잘 들어오는데 왜 하필 예수쟁이, 상놈한테 시집갈라 카노?”

게다가 최성묵이 전쟁 때 총상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친척들은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김순이의 울케는 최성묵이 총상으로 인해 생식능력에 이상이 있을 거라고 짐작하고 아기도 낳지 못할 거라며 결혼을 반대했다.

이런 상황이라 양가가 합의해서 혼인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남은 길은 두 사람이 결혼을 결행하는 일 뿐이었다. 그러나 흥해처럼 좁은 사회에서는 누가 뭐라도 선뜻 나서서 두 사람의 결혼을 주례할 사람조차 없었다. 부모들이 극력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자식들의 결혼을 주례한다는 것은 부모들과 원수질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홍해의 사랑의 사랑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을 응원했다. 그래서 결혼식이 중심이 되어 올려 주었다. 홍해중학교의 교실 하나를 후원에 식순을 쓰고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흰 손수건에 축하 메시지를 써서 사랑을 삶아 대접했다. 모두들 두 사람의 약혼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1954년 봄 홍해는 영어교사로 발령을 받았다. 서울대학교는 더 이상 다닐 생각도 없었던 두면 생계를 꾸릴 직업이 필요했다. 김순이는 포의 외자관리를 하면서 홍해로 와서 최성묵과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출퇴근을 할 수 없었다.

이 무렵 결혼식을 준비하는 불화가 극에 달해 최성묵은 어머니의 분노를 사서 집에서 쫓겨나 홍해의 보따리에 책을 싸들고 나가 한 마을에 사는 친척집 방 한 칸을 빌려 출퇴근을 하는 형편이었다.

당시 홍해는 마을로 부흥회가 열렸다. 1954년 늦겨울, 홍해제일교회의 부흥회에 길목사가 초청되어 왔다. 길목사는 영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인텔리로서 키가 큰 신사였다. 부흥회를 마치고 유숙한 곳은 이악이 집사의 집이었다. 이 집사는 길목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을 걱정하자, 길목사는 “결혼은 두 사람의 부모가 무슨 상관인가? 정 주례할 사람이 없다면 내가 해주겠다.”고 나섰다. 홍해는 홍해에 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부모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되자 결혼식은 급속도로 추진되었다. 길목사가 홍해를 떠나기 전에 결혼식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최성묵은 바로 포에 있는 김순이에게 연락을 했다. 외사촌 오빠를 통해 빨리 홍해로 오라는 최성묵의 연락을 받은 김순이는 그날 딱차를 타고 홍해에 도착했다.

버스를 나서니 최성묵이 기다리고 있다가 김순이의 손을 잡으며 빨리 결혼식을 올리야 한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두 사람은 교회로 가서 정목사와 전도사를 만났다. 그들은 길목사와 이야기가 다 되었으니 빨리 결혼식을 올리라는 것이었다. 김순이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들었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포의 외자관리청에는 사표를 고부랴부랴 결혼식 준비에 들어갔다.

두 사람 모두 양가의 협조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준비는 모두 본인이나 교인의 도움을 받았다. 김순이는 아는 포목점에서 천을 구하고, 아는 분에게 바느질을 부탁해서 한복 두 벌을 예복으로 만들었다. 결혼식장은 당연히 교회였는데 교회 청년들이 밤잠을 안자고 장식을 꾸며 주었다. 예물 교환은 먼저 시집 간 친척에게 부탁을 해서 반지를 빌렸다. 그렇게 해서 양가의 부모님들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친척과 교인들의 축하

속에 1954년 12월 3일 두 사람은

길진경 목사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당시의 풍습으로는 신혼부부는 먼저 신랑 집으로 들어갔다. 김순이도 신랑 집으로 들어갔지만 이미 결혼한 딸의 신행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위에게 못마땅한 사위의 인사를 받았고 이후 두 사람은 김순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장인은 사위를 바로 사위집으로 보내는 형편이었는데 사위가 인사라도 드릴라치면 못마땅한 헛기침을 뱉으며 핵 돌리듯 하는 형편이었다. 어색하고 불편한 처가살이는 해가 바뀌어도 계속되었다.

13. 포 고등학교 교장

1955년 3월 25일 최성묵은 홍익대학교 학생 서너 명이 찾아왔다. 김순이의 회상에 의하면 (그 용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으나) 사위의 매우 부당한 처사가 있었고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최성묵은 사위에게 상을 치면서 교장을 성토했던 후 곧바로 사표를 던졌다. 아마도 당시 사위에게 어떤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던 것 같고 최성묵은 그런 분위기를 참을 수 없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최성묵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사건이었다.

며칠 후 쉬고 있는 최성묵을 홍익대학교 학생 서너 명이 찾아왔다. 학생들은 최성묵에게 포 고등학교로 와서 수학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포에서 서울대학교 수학과에서 공부한 강사를 고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은 현명한 것이었다. 최성묵은 학생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1955년 4월 6일 최성묵은 포 고등학교의 수학 강사로 임명되어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성묵은 단지 수학만을 가르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업을 통해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을 후배들에게 베풀었다. 당시 그의 제자였던 김정조는 그 시절의 최성묵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는 햄릿처럼 수려하고 우수에 찬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 언제나 같은 용의 때물은 강의노트나 끼고 다니는 나이든 교사들의 권태로운 잔소리에 진력이 나 있던 시골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류대학 출신의 준수한 애송이 수학교사의 출현은 하나의 사건이었다. 강의 시간의 틈새마다 문학, 철학, 예술의 세계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기도 했고 미지의 세계에 목말라 있는 모교의 후배들에게 그는 섬광과 같은 가능성과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참으로 잘난 선배교사였다. 오직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 답답은 수학공부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하고 수많은 책들을 밤새워 읽는 버릇을 얻기도 했다.(김정조,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212쪽)

포 고등학교로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해서 최성묵 부부는 분가해 나왔다. 당시 풍습대로 하자면 부부가 신랑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모친 안집사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으므로 방을 하나 얻어 신접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살림살이라야 식기와 냄비 정도가 고작이었고 변변한 가재도 ㄹ도 없었다. 비록 웅색하고 소꿉장난 같은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은 더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 무렵에 기독교장로회의 지도자 김재준 박사가 포 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다. 자유당 정권이 상당한 압력을 가했지만 최성묵이 나서서 설교 장소로 포 고등학교 강당을 제공하도록 노력했다. 김재준 박사는 1956년 가을에도 흥해제일교회의 사경회에 참석해서 교인들을 격려하였다. 최성묵은 평소 존경하던 김 박사를 만나게 되면서 신학 공부에 대한 열망을 ㄹ체화하게 되었다.

14. 한신대 입학

최성묵은 김재준 박사의 권유에 의해 한신대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1955년 한 해 동안 근무한 포 고등학교를 사직하고 1956년 4월 5일 한국신학대학 2학년에 편입학했다.

최성묵은 흥해를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 그리고 1949년부터 흥해제일교회에서 일했던 강혜순 전도사의 큰집에서 그 조카의 가정교사를 하면서 숙식을 해결했다. 최성묵을 아는 강 전도사의 부군 김광열 장로가 소개를 한 것이었다. 그 때 강 전도사는 결혼하여 제천에 살고 있었다. 김순이도 남편 상경 후 강 전도사의 권유로 몇 개월간 제천에서 생활하다가 첫 아이의 임신으로 다시 친정으로 와서 해산하였다. 장녀 혜림을 출산한 것이었다. 얼마 후 김순이는 장녀를 데리고 시집으로 들어갔다. 결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손녀까지 생긴 상황이라 시어머니 안집사는 노여움을 풀고 며느리를 받아들였다. 그 때부터 김순이는 과수원에서 일하며 최성묵이 한신대를 졸업할 때까지 고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다.

1959년 3월 최성묵은 한신대를 졸업하고 충북 제천에 있는 제천중학교의 교사이자 제천제일교회의 전도사로서 일하게 되었다. 강혜순 전도사의 부군인 김광열 장로가 최성묵을 초빙했다. 그는 제천에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제천중학교 등 학교법인의 이사장이기도 했다. 최성묵은 가족과 함께 제천읍에 살면서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주

일에는 교회 일도 함께 했다.

15. 4·19와 기독교학생운동

해가 바뀌어 1960년이 되었다. 그 해 봄, 3·15선거를 전후해서 꿈틀대기 시작한 민중의 분노는 마침 자유당 정권을 타도하는 거대한 혁명으로 분출했다. 이 때 최성묵은 제천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시대의 소용돌이는 그를 새로운 역사의 무대로 불러는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 그의 생활에 대한 흔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그 해 12월 14일 장남 혜승이 태어난 기록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그렇지만 충청도의 소도시에서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가 서울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은 분명 4월혁명이 몰고 온 시대의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음에 틀림없다. 4월혁명이 한국교회에 준 충격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박형규 목사는 4월혁명의 충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나는 그때까지 사회 전반의 부조리나 부정부패 같은 것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평범한 목회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다 1960년 4월 19일 역사적인 날을 맞게 되었다.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중요한 날이지만 삶에 있어서도 잊을 수 없는 날이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뜨거운 피를 쏟은 4·19혁명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생각이 크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 들것에 실린 학생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언가 머리를 강하게 리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들에게서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이었다.(박형규,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97-98쪽)

최성묵은 4월혁명 이전부터 김재준 박사의 영향을 받고 있던 터라 이미 현실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기독교학생운동의 실무에 뛰어들게 된 것은 4월혁명이 몰고 온 기독교계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았다.

최성묵이 서울에서 KSCM의 간사로 일하게 된 계기와 시기를 알려주는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1961년 1월 이전에 서울로 와서 사업에 참여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최성묵에 대해 차선각 목사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KSCM(한국기독교학생회 전국연맹)에서 간사로 활동하던 최성묵 목사를 1961년 1월 서울 수유리에 위치한 한국신학대학에서 열린 KSCM 겨울대회에서 만났다. ... 그런데 학

생들이 주최 측의 불성실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자 그의 전도사인 최성목 간사가 “이
야” 하면서 욕을 퍼붓고 찢다.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 의아했고 충
전도사나 목사는 온유하고 사랑의 실천자로만 생각하던 나의 관
자극을 주어 ‘최성목’이란 이름이 나의 머릿속에 강하게 각인되면서 몸으로
천하는 최성목 간사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생각치도 못했던 *Christian Identity*
시작했다 (최성목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161쪽)

이 시기 최성목의 별명은 ‘최핏대’였다. 그는 당시 교계에서 최성목의 특
성격을 나타내었다. 당시 교계에서 최성목이 어떤 사람으로 불리는
이는 고 강원룡 목사가 “최성목은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으면 치
같이 화를 퍼 ‘강핏대’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최성목의 이런 별명을
이유가 있었다.

이 시기 최성목을 접한 사람들은 그가 매우 활력 있고 동적인 사람이라고 하
고 낙천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기독교 학생
동기를 부여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없었다. 최성목은 당시 세석할 때도 전
이 아니라 현재의 사회 상황에 비추어 분석했고 기독교 학생의 입장에
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독교 학생 후배들이 최성목
을 따랐다. 최성목은 사람들을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최성목은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
들이는 매력이 있었다.

이런 최성목과 관련하여 분명히 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오직 열정 하나만으로 버텨나가야 했던 상황이 최성목이 자주 핏대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니었는지 모를 일이다.

1961년 5월, 5·16쿠데타가 일어났다. 쿠데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기독교계에 던져주었다. 그러나 자유당 때와는 달리 교계에서도 군부의 원대복귀를 중용하고 민의에 의한 정책을 현할 것을 강조한 소위 재야세력이 형성돼 가고 있었다. 최성목과 함께 일했던 박상증은 군정 시절, 이들 재야 어른들의 심부름을 했던 기억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그 때 최고회의 의장은 박정희 소장이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자이니 그에게 전해야 할 성명서는 붓글씨로 써야 한다는 재야 어른들의 주장 때문에 시 대서방을 찾아다녔던 기억이 새롭다. 그러나 문서의 용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글을 쓰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결국 종로 네거리 파출소 뒷골목의 대서방 영감이 비밀을 담보로 달필로 글을 써 줬었다. 종로 2가 기독교서회 2층 회의실에서 기다리던 재야 어른들에게 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우리가 전해드린 두루마리를 검열하신 후 그것을 최고회의에 가져다주라는 분부가 려졌다. 이것 역시 젊은 사람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시절에 최고회의 앞에는 쥐 한 마리 얼씬거리지 못하는 때였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용감하게 기독교서회 회의실을 나와서 걸어가도 될 거리를 시발택시 잡아타고 최고회의 앞에 서 있는 보초에게 전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창탁뚝추죽

까지 갈라... 요가
1955년... 위한 명동합
아시아지... 왔고 3단체의
기서 각... 사회적 역할의 차이
의했다. ... 합을 위한 협의체로서
하고 3단... 그 임직원을 맡기로 했던 것
탄하지 않... 협의회 운영체제는 겨우 195... 실
무진이 없... 당시 한국의 주요 교단은 기독... 으
로는 독자... 선교는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완
전히 포기... 않았다.

그 때 ~~합을 위해 매우 유리한 조건이 외부에서~~ ... 교회는
한국감리교회에 미국식 교파적 청년학생운동을 도입... 그 때
파송되었던 대한감리교 총리원 수녀부의 선교사가 후... 되는 제
임스 레이니 목사였다. 그런데 감리교단은 선교사의... SCC로 옮
기고 감리교 사업에 사용하려 했던 정동의 쟈센기념... 대한 결정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1960년 레이니牧사는 KSCC의... 그의 주선
으로 KSCC의 사무국을 쟈센기념관에 설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성묵은 KSCM 간사로서 열심히 ... 천에서 일단 경
주(이때는 가족들이 흥해에서 경주의 과수원으로 이... 가서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때 손주들과... 섭섭했던 안집사의
주장으로 김순이는 장녀 혜림을 할머니 댁에 맡기고... 리고 상경했다.

김순이의 회상에 따르면 최성묵이 서울에서 일하는... 들 바쁘게 움직였고 귀
가시간은 거의 12시였다. 12시가 되어서 귀가하는 최... 김순이는 늘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진 밥상을 올렸다. 그리고 최성묵은 김순이... 날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애
기하면서 둘만의 대화를 나누었다. 김순이는 대화를 ~~해 그의 활동과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부간의 이런 대화는 평생 동안 계속되었고 그것은 그들 부부의 각별한 애
정이 변함없이 지속되는 원천이었다.

최성묵의 가족은 상경 후 혜화동에서 전세를 살았는데 얼마 후 뜻밖의 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최성묵에게 누군가 아는 사람이 와서 1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꾸어달라고 사정했다. 딱한 사정을 들은 최성묵은 그의 약속을 믿고 수중에 있던
사무실의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빌려간 사람은 1주일도 지나도 돈을 갚을 생각도 하
지 않는 것이었다. 더~~나~~ 그 돈은 최성묵의 것이 아니라 사무실의 공금이었기 때문에
당장 있어야 했다. 사람을 잘 믿을 뿐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돕고 싶어

하는 최성묵의 성격이 빚어낸 사고였다.

최성묵은 그 일을 아에게 솔직히 말했다. 김순이는 너무 화가 났지만 어떻게든 일을 수습해야 했다. 결국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빼서 먼저 사무실의 돈을 메꾸어 놓은 다음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찾으러 나섰다. 어린 혜승을 등에 업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아 나선 것이다.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김순이는 막시누이를 앞장 세웠다. 안양 어딘가에 있었던 그 사람의 집은 어떤 개천가의 넓고 더러운 집이었다. 입구에 있는 부엌에는 문짝도 없이 가마니로 가려져 있었고 방 안에는 두만 한 켤레 다듬잇돌 위에 놓여 있었다. 들여다보니 좁은 방안에 한 남자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채무자를 깨워 이야기를 해 봤지만 살고 있는 꼴만 보아도 거기서 빌려준 돈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애초에 싹수가 노란 일이었다.

김순이는 돈을 돌려받기를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사무실 돈을 메꾸어 놓고 나니 당장 월세를 낼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도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 짠 방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했다. 김순이는 혜화동에서 가까운 삼선교 쪽으로 방을 얻으러 갔다. 복덕방에서 방세가 싸다는 어떤 적산 집을 소개했다. 가서 보니 그 집인데 한 쪽에 주인집 방이 있고 다른 쪽에는 셋방이 여러 개 나란히 붙어 있었다. 부엌은 칸막이가 아예 없고 방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다. 이 집은 월세를 선불로 야 했는데 김순이는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 방 한 칸을 얻으러 왔는데 지금은 돈이 없지만 한 달 후에 월급을 타서 월세를 줄 테니 사정을 봐 달라고 사정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이렇게 방 얻으러 오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도 아기 엄마를 보니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 그래서 그 집의 맨 끝 방을 얻어 이사를 하게 되었다. 이사를 가도 그것은 전부 김순이의 몫이었고 최성묵은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이사 간 집의 위치를 김순이가 가르쳐주면 최성묵은 퇴근 후에 찾아올 따름이었다. 이처럼 최성묵은 지나치리만큼 이재(理財)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그 때문에 김순이는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어느 날은 김순이가 최성묵이 일하는 쟈센기념관에 들른 일이 있었다. 그러자 사무실의 여직원이 김순이를 보고 말했다.

“아휴, 사모님, 어떻게 사세요?”

김순이가 웃으며 왜 그러냐고 하니 여직원 말이 간사님이 사무실에 있으면 시골에서 제자라고 찾아오고, 고향사람이라고 찾아오는데 오는 사람마다 고향 갈 차비가 없다, 쌀이 떨어졌다면서 사정을 하면 그 때마다 주머니에서 있는 대로 털어서 돈을 쥐 보낸다는 것이었다. 간사 월급을 뻔히 알고 있는 여직원으로서 그렇게 하면서 집에서는 어떻게 생활을 할 지 걱정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래도 김순이는 없는 살림을 쪼개고 또 쪼개서 억척같이 살아나갔다. 식생활은 오로

지 밥... 있으면 견뎌낼 수 있었다.

17. ...을 위해

당시...과 200여개 고등학교 기독교학생회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었다. 총무를 맡았던 분은 손명걸 목사였는데 최성묵은 손목사와...인데 최성묵은 때로 손목사와 의견이 맞지 않아 화가 날 때...말굴도 마주 보지 않을 때도 있을 만큼 고집이 있었다. 그렇지만...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일도 자...겨울 최성묵을 처음 만난 이직형은 첫 인상을 이렇게 기억한다

쉽...서운 눈길을 가졌으며 질문을 하면 단답으로 끝...는 사람이...었다. ...상 쓰고 다니는 사람으로 교회 주변에서는 보기 드문 패션이...『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149쪽).

이...이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 KSCM의 조직을 관리하는 고유의 업무 외에도...있었다.

먼저...워크 캠프(Work Camp)운동이 있었다. 워크 캠프는 1950년대에 세계적으로 확산...청년프로그램이었는데 각국의 청년들을 상호 교류 방문하게 하면서 봉사활동을...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최성묵은 실무 건설로서 이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열심히 참여했다.

다음으로 청년학생단체협의회 창립이었다. 이 단체를 창립하게 된 배경은 박정희 정권의 청소년정책 때문이었다. 박 정권은 청소년 문제를 두 가지 발상으로 생각했는데 첫째는 청소년 전체를 우범자로 보는 ‘청소년 선도’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목적으로 청소년을 동원하려는 시각이 있었다. 어느 것이나 자율적인 청소년 활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창립한 것이 이 단체였다. 이 단체는 창립 후 한국유네스코의 청년학생부와 연계하여 자율적 청소년 활동을 위한 기초를 놓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셋째로 한국교회청년협의회(EYC)의...성이었다. 이 협의회는 한국교회에 뿌리...교과주의에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으로서 조직한 초교과적 기독교청년단체였다. 이 운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당시 NCC 청년 간사

인 박상중 등은 에큐메니칼 청년대회를 추진할 수 있는 장소가 드물어 이화여자대학교 대 총장 김활란 박사가 뜻밖에도 쾌히 승낙하여 청년협의회가 주동이 되어 1964년 12월 필리핀을 한국대표로 청년 44명을 보기도 했다. 당시 비행기를 전세 계약하고도 정부의 여권 발급을 비행기에 태울 수 있었다.

그러던 중 1964년 6월경 KSCC에서 감사원으로 가게 되면서 최성묵이 KSCC의 일을 하다가 KSCC가 해산되기 직전까지 기독교학생운동의 손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SCC는 군사정권이 추진하는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공동의 의제와 토론 그리고 실천이 있어 이를 통해 공익을 실현하려 하였다. 그 용을 보면 WSCF가 제시한 “교회의 생명과 사역”을 주제로 각종 연수회가 지역별로 또는 수도권에서 진행되었다. 그 주제는 신학의 문제, 사회적 가치와 경제개발, 대학사회의 사명, 근대화, 신학 등과 같은 다양한 것이었다. 1963년부터는 기독교교수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토론과 협의도 활발해졌고, 현안 주제에 대한 교수와 학생간의 교류도 있었다.

이 무렵 KSCM의 손명걸 목사가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어 박형규 목사가 후임으로 와서 기독교학생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 노력하였다. 박형규 목사의 회고록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학생운동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6년에는 KSCM 대학생 여름대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이 대회的主題는 ‘우리 민족의 장래와 기독교’였다. 김관석 목사가 강사로 와서 주제 강연을 했는데 그 요지는 한국 기독교가 서구 신학과 교회의 전통을 모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제적 신학과 신앙형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강연은 많은 학생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이후 ‘한국의 복음화’라는 말 대신 ‘기독교의 한국화’라는 말이 널리 쓰이게 되었다.

또 1967년에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 5대 도시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성장과 기독교의 현존’이라는 주제로 창립 20주년 강연회를 열었다. 나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기독교자들이 정치에 책임을 느끼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강연회의 주제에 ‘기독교의 현존(presence)’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1964년 7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WSCF의 성명과 관련이 있다. WSCF의 성명이 이 말을 자주 사용하여 곳곳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기독교의 현존’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현존’

이라는 말과 대응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뜻한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가난하고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할 '그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즉 기독교학생들이 현실침묵을 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

또 KSCC가 주관하고 있는 Frontier Study And Servics)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 용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1명씩의 학생들이 참가해서 팀을 만들고 그 팀이 핵심이 되어 각 지역을 돌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연과 행동을 하고, 이에 자극 받아 각 학교와 지역에 작은 그룹들이 형성되어 '그리스도의 사랑' 형태의 실천 프로그램이었다. 이러한 운동들이 발전, 축적되면서 기독교학생운동의 통합을 위한 1968년 여름의 수원대회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성묵은 열정적으로 일했다. 김순이의 회고에 의하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수는 열악했고, 그나마 한번도 온전한 월급봉투를 손에 쥐어 본 적이 없었다. 최성묵은 상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 후배나 학생들에게 밥이라도 사주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냥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삶을 경제적으로 떠받혀준 것은 오로지 김순이의 억척같은 조의 덕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김순이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가지고 불평하지 않고 어려운 살림살이를 꾸려 나갔고 오히려 조금씩 저축을 해서 나중에 천호동에 집을 장만했을 만큼 철저히 근검, 절약하는 생활을 해 나갔다.

삼선교의 월셋방에서 상당 기간 산 후 최성묵의 가족은 불광동 국립보건원 뒤쪽의 산자락 골목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 때는 불광동이 서울시로 편입된 직후여서 허허벌판이었고 버스도 몇 시간 만에 한번 씩 올 정도로 외진 곳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집세가 싸다. 여기서 전세가 싼 집을 얻었는데 방 한 칸에 좁은 까치부엌이 딸려 있었다. 연탄불을 피워도 겨울에는 추워서 방 안에 있는 물이 얼었다. 남편과 아이들은 아랫목에 재우고 늘 문 앞에 있던 김순이는 얼굴 피부가 얼어 더운 곳에만 가면 얼굴이 달아올라서 민망할 정도였다. 이 시기에 불광동에서 가까이 살았던 박상중은 가끔 최성묵이 LP판으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빌리러 자신의 집에 왔다고 기억한다.

여전히 어려웠던 불광동 시절에 김순이는 조금씩 저축을 하고 계를 하던 옆집 친의 도움을 받아 천호동에 집터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 일은 최성묵 몰래 김순이가 추진한 것이었다. 그 때 천호동은 아주 시골이었다. 한강 다리 건너 한 야산의 언덕 위에 주택지로 개발된 땅 100평을 샀다. 그런데 옆집이 건축을 하면서 30평을 잠식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부르는 게 값이라고 주변에서 땅 값을 많이 받으라고 했지만 김순이는 원래 분양받은 금액만 받았다. 주변에서는 바보짓을 했다고 핀잔을 들었다. 땅은 샀지만 집을 지을 돈이 부족했는데 친정 어머니가 돈을 팔아 도와주어서 집도 지었다. 집은 벽돌로

튼튼하게 짓고 하얀 페인트 칠을 했다. 집 주변에는 담을 치지 않고 펜스 위로 장미꽃을 둘렀다. 마당에는 잔디를 깔고 주위에 무궁화와 장미꽃을 심었다. 이웃에서는 하얀집이라고 불렀다. 이때가 김순이는 서울 생활 중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최성묵이 실무를 맡아 집행했던 사업들은 많은 경우 모금을 통해 예산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령 국제행사를 하는데 각 대학 별로 모금 목표를 정해서 예산을 짰지만 모금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사업비의 많은 부분이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김순이는 그 무렵 설악산에서 열렸던 국제학생행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다. 최성묵은 김순이를 불러 그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김순이는 중국 남학생의 파트너가 되어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행사는 각 대학의 모금으로 예산을 조달키로 돼 있었는데 어느 대학인가 전혀 모금이 안 되었다고 한다. 그래도 최성묵은 독촉하는 법도 없이 그저 웃어넘길 뿐이었다. 그런 식으로 쌓인 빚이 KSCC가 해체될 무렵에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런데 이 빚은 당연히 KSCC의 이사장이나 이사회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 실무자인 최성묵이 책임질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결국 책임질 사람이 아닌 최성묵이 그 책임을 졌고, 김순이가 어렵게 살면서 겨우 장만한 천호동 집은 KSCC의 빚을 갚기 위해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18.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진학

최성묵은 KSCC로 자리를 옮긴 1964년 그 해 9월부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연신원)에 입학했다. 연신원에는 최성묵이 유달리 존경하는 김정준 박사가 있었다. 김정준 박사는 부산 동래 출신으로 일제하에서 일본 청산학원 신학부, 캐나다 임마누엘 신학교,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에서 주로 신약학을 공부하였고 1949년 한국신학대학 신약학 교수를 시작으로 1961년 한신대 학장을 지냈고, 1963년부터 연세대 교목실장 겸 신약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연신원은 당시 한국의 신학교들이 자체의 대학원을 설립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힘을 합쳐 수준 높은 신학대학원을 발전시키기 위해 WCC 신학위원회에서 30만 불의 재정지원을 얻어 세워진 대학원이었다. 그러나 각 교단 신학교들은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각자의 대학원을 시작했을 정도로 한국교회의 교파주의는 뿌리 깊은 것이었다.

그러나 최성묵은 연신원에 남아 김정준 박사의 지도 아래 신약학을 전공하였다. 그리고 1968년 2월 최성묵은 '제왕시에 나타난 왕 개념'이라는 논문으로 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무렵 교계에서는 최성묵이 김정준 박사의 수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최성묵의 야인적 성격과 운동에 대한 열정이 학자로 머물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박상증은 이 무렵의 대학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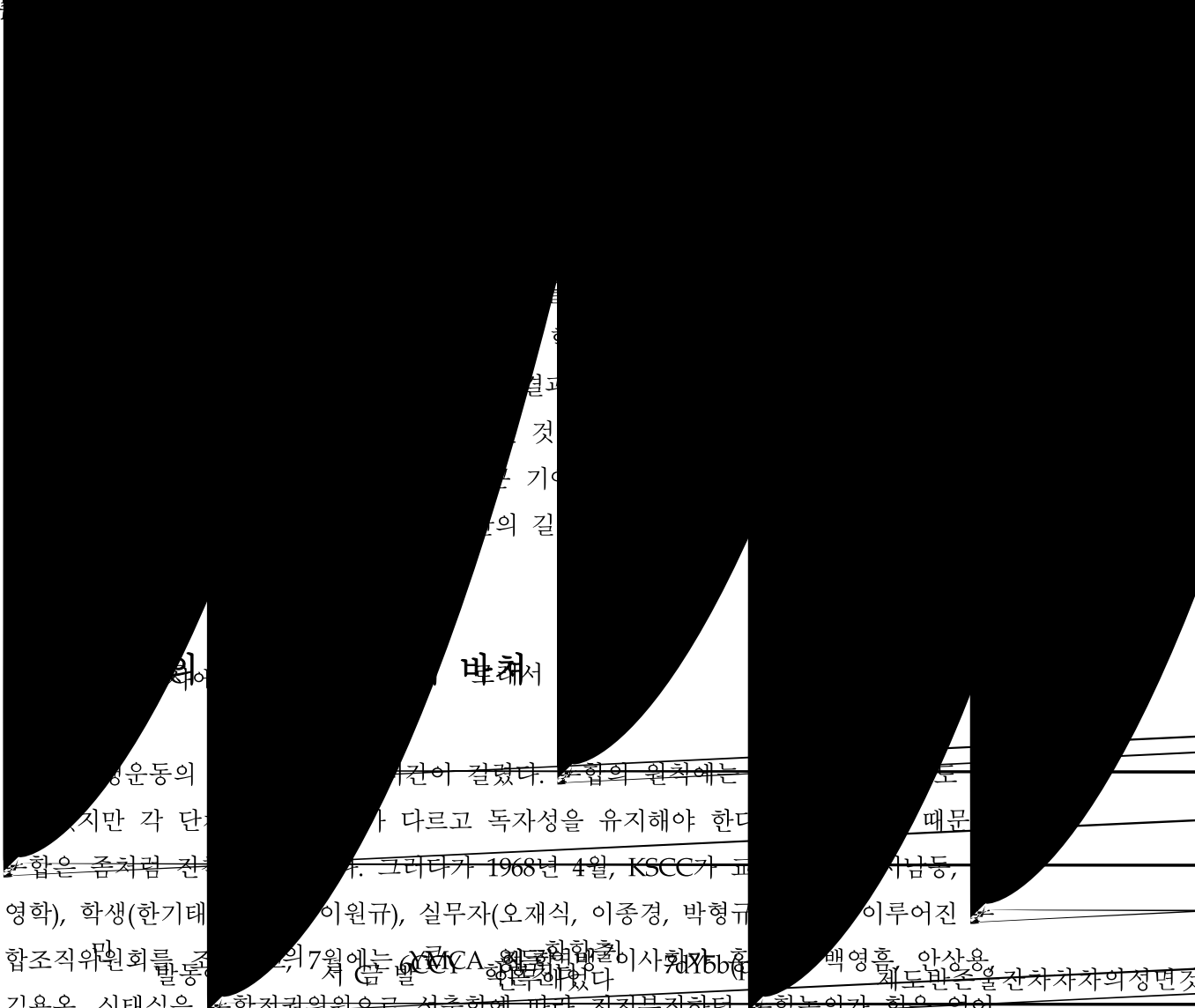
그 당시의 학원의 분위기는 상아탑의 벽돌담을 쌓기 시작한 때라 운동과 학문이 양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소위 학자들의 입장이었다. 그때는 “의식화”라든가 “praxis”라든가 하는 말은 감히 하지도 않았고 학문의 상아탑은 고상하게 높이 서 있기만 하는 것으로 인식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학문을 한다는 것은 학문에 대한 모독이 아니면 불성(不聖)스러운 침입자로 봤을지 모른다. 나는 가끔 명동이나 무교동의 야행성 뒷풀이에서 운동/학문의 양립성 혹은 화합을 가지고 여러 번 토론해본 일이 기억난다. 최 목사는 양자가 같이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그 시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교수가 되고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외국에 가기를 원했던 때이기도 했다. 최 목사는 주변의 친들이 외국에 가도 그다지 유학이라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그런 가능성이 주어졌다면 정말 훌륭한 전문가가 됐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선배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라고 권했던 사람들이 분명 있었으리라 생각한다.(박상증,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134쪽)

박상증의 생각대로 그에게 외국 유학을 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바로 최성묵의 지도교수였던 김정준 박사였다. 김 박사는 최성묵의 영국 유학을 주선했고 그가 원하기만 하면 갈 수 있었다.

김순이의 회상에 의하면 그 무렵 언젠가 김정준 박사가 자신의 생일에 몇몇 사람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연세대 뒤 숲 속에 있는 김박사의 관사로 갔다. 그 생일파티에서 김순이는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칼로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미국은 생일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파티를 마치고 나왔는데 김정준 박사가 숲길을 배웅하면서 김순이에게 말했다. 자기가 스칼라쉽까지 받아서 영국에 유학할 수 있게 해 놓고 최성묵에게 가라고 하니까 와이프 때문에 못 간다고 해서 결국 못 갔는데 너무 아깝다고. 아마 김박사는 김순이가 반대해서 못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김순이는 최성묵에게 그 연유를 물었다. 최성묵은 “가 유학을 가면 당신이 다시 과수원에 가서 고생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었다. 나는 유학을 안 가도 괜찮다. 가 강연하면 박사가 할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오는데 굳이 박사학위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최성묵은 김순이에게 평소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도 유학 이야기는 일체 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다.

의 학업이 있었을



박채서

성운동의 ... 권이 걸렸다. ... 원칙에는 ...

지만 각 단 ... 가 다르고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 때문

합은 좀처럼 전 그러다가 1968년 4월, KSCC가 ... 사남동,

영학), 학생(한기태 ... 이원규), 실무자(오재식, 이종경, 박형규 ... 이루어진 ...

합조직위원회를 ... 7월에는 YWCA, YMC, YMCA, YB ... 백영훈, 이상용 ...

김용옥, 신태식을 ... 합전권위원으로 선출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 협논의가 힘을 얻어

체적인 협의단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협의가 결실을 이루어 KSCM과 대학 YMCA

전국연맹이 '한국을넘어롭게'라는 주제 아래

들어갔던 것 같다.

을 이직형은 다음과

그 해 7월 수원외
지도자 80여명이
주체성, 자발성으로
르던 지난 날의 최
학생사회개발단(學
분도 던지고 초
었던 것 같았다.(이

기독교학생운동의 ~~합~~ 과정이 ~~장~~ ~~합~~된 단체의
담을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 ~~한~~ 것은 당시 새로 ~~합~~된
KSCF의 자리를 놓고 각 교단 ~~벌~~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KSCC는 그 사명을 다해서 해 ~~자~~였던 최성묵에게는 아무도
다음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묵~~은 미련없이 스스로 물러나
자신이 설 자리가 어디인가를

게다가 더욱 고약한 것은 K ~~부~~채를 누 ~~도~~ 책임지지 않았다
는 사실이었다. 채권자들은 열 ~~니~~라 실무자인 최성묵에게 빚 독
촉을 하게 마련이었다. 결국 ~~한~~고 끝에 결혼생활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천호동의 집을 팔아 그 ~~로~~ 10년 가까이 일해 온 기독교학생
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났다.11)

20. 부산으로 가는 길

1969년은 최성묵이 새로운 ~~가~~ 할 시점이였다. KSCF의 산파역을 마치고 낡
은 몸을 부수고 말썸에 따라 ~~선~~택해야 할 시점이였다.

바로 그 때 부산에서 차선 ~~형~~이 최성묵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이미 1960년대
초부터 KSCM, KSCC 활동을 ~~해~~ 최성묵을 잘 알고 있었다.

부산에서 모임에 올라와서 차선생을 꼭 만나고 천호동 집을 겨우 찾아서 휴식, 흥분, 반가움이 영천 지역에서 기독교학생회, 학생회, 학생회, 학사단 문제, 에큐메니즘을 그리며, 최기영, 차선각 선배 등과 수시 토론하고 두 서울의 최선생과 만나게 하였기 때문이다.

천호동에서의 생활은 우리는 사회변혁으로 가는 교회와 학생회로 갈 수 없다. 중국에서처럼 촌락에서 도시로, 지방에서 도시로 가는 꿈을 우리에게도 해 보자는 것이다. 점심 때가 되어 ~~가난한 부국수 파타는 차금도 얻을 수 없다.~~ ~~천~~ ~~꿈에~~ ~~“최선생과~~ ~~불쑥~~ ~~나온~~ ~~나의~~ ~~제안이었다.~~(이직형,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천호동의 '하얀집'에서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차선각과 최성목은 대 해 의기투합했다. 최성목은 KSCM, KSCC의 활동을 하면서 집안에서 활동하는 가능성이 일찍부터 주목했던 것 같다. 더구나 차선각, 이직형은 차선각의 지도 하던 젊은 리더들이었다. 그들로서는 최성목이 부산으로 온다면 차선각이 좋은 일이었다. 그 때 부산 YMCA는 새로운 총무가 필요했다. 최성목이 부산 YMCA 총무로 올 것을 제안했고 최성목도 흔쾌히 동의했다. 최성목은 두 사람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갔다. 최성목은 부산에서 약 한달 가까이 부산의 교회 지도자, 와이즈맨 선배, YMCA 이사들을 만났다. 장성만 목사, 김소영 목사, 김기엽 목사, 정태성 장로, 이광혁 장로, 김철기 선생, 여해 등 사람들을 만나 YMCA 총무 후보문제를 탐색하고 지역사정을 살폈다. 그러나 기대했던 YMCA 총무 선임은 쉽지 않았다. 당시 부산YMCA 이사회의 구성은 부의 의사소통이 어렵게 되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선교정책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뚜렷한 지도력도 발휘되지 못했다. 더구나 최성목은 외지인인데다 진보인사라는 선입견도 있었다. 동래호텔에서 열린 이사회는 무기 연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단 서울로 올라갔던 최성목은 깊이 고민한 끝에 결단을 하고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때가 1968년 말경이었다. 이 결정은 김순이와는 충분히 상의했지만 차선각 등 부산 사람들에게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 불시에 이루어진 최성목 가족의 부산행에 차선각, 이직형 등은 매우 당황했다. 이삿짐을 풀고, 전셋집을 얻느라고 동분서주하였다. 사실 아무런 직장이나 생계의 보장도 없이 무작정 낯선 곳으로 가족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지만 최성목은 과감하게 결단했고 김순이는 그에 동의했다.

21. 거리의 신학자

김순이는 천호동의 집을 팔아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얼마간의 돈으로 부산 양정동에 전셋집을 얻었다. 양정동 언덕배기에는 당시 집장사들이 지은 비슷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전셋집을 얻었지만 형편이 어려워 방 하나를 세놓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금을 주고 세를 들어오기로 했던 사람이 사정이 생겼다면 계약금을 해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연히 계약금은 주지 않아도 되었지만 김순이는 남의 돈을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최성묵 가족이 부산에 정착한 초기 즉 1969년과 1970년 무렵이 그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YMCA 총무직이 무산된 터라 최성묵이 몸 담을 곳을 당장 찾기가 어려웠다. 그래도 최성묵은 매일 아침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서서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 시기에 김순이는 친정 어머니의 도움을 조금씩 받아서 어려운 살림을 겨우 꾸려가고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김순이는 아침마다 최성묵이 다방에라도 가서 쓸 용돈을 쥐어 주었다.

그 무렵 최성묵이 출근하던 곳은 광복동 세명약국 앞에 있던 고전다방이었다. 이 다방의 주인은 와이즈맨과 YMCA 이사를 하던 분이었는데 여기서 최성묵은 일요일마다 뜻 맞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했다. 함께 했던 분들은 우창웅, 차선각, 이상화, 여해룡, 김순규 씨 등이었다.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현실인식이 결합된 최성묵의 성서 해석은 좌중을 진지하면서도 열띤 분위기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 성경공부하는 시간이 최성묵에게 가장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그러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간혹 버스비가 없어 양정까지 몇 시간씩 걸어가기도 했다. 그렇지만 최성묵은 그런 궁핍을 다른 사람에게 색하는 법이 없었다. 이 시기의 최성묵은 말하자면 '거리의 신학자'였다. 교회의 제도 속에 설 자리가 없어 거리를 떠도는 신학자였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래도 최성묵은 묵묵히 매일 아침 고전다방으로 출근하고 저녁이면 양정으로 퇴근했다.

그러는 사이에 최성묵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강연도 하게 되고 이런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 부산신학교에서 약학을 강의했던 것도 이 무렵부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 김순이는 두 자녀를 더 출산했는데 1969년 6월에는 차녀 혜은이, 1970년 10월에는 차남 혜광이 태어났다. 연년생으로 아기가 태어났으므로 김순이의 친정어머니께서는 가사를 돌볼 사람을 보 서 딸의 어려움을 도와주셨다.

22. 미문화원 학생담당 간사로

1970년 9월경 최성묵은 미국문화원의 청년학생담당 간사직을 맡게 되었다. 당시 대청동에 있던 미국문화원에서 청년학생담당 간사를 공모했고 최성묵이 채용되었던 것이다. 이 때 최성묵의 신원조사를 담당했던 미국관리가 “최 선생, 당신의 경력을 조사했는데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왜 한 사람도 없습니까?”라고 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떻든 미국문화원의 청년학생담당 간사가 됨으로써 최성묵은 부산에 온 후 처음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게 된 것이다. 당시 미국문화원에는 부산시 대학생들의 연합서클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최성묵은 이들을 지도, 지원하는 일을 맡았다. 서울에서 기독교학생운동에 헌신했던 경험과 타고난 열성으로 최성묵은 미국문화원의 학생활동을 훌륭하게 지도했다. 이 무렵에 최성묵은 부산 중앙성당에서 보좌신부를 하고 있던 송기인 신부의 부탁을 받아 부두에서 하역노동을 하고 있던 노동자들에게 교양강좌를 하기 시작했는데 송신부의 기억에 의하면 4년 동안 계속되었다.

미국문화원에서 일하게 되면서 집을 양정에서 대청동으로 이사를 했다. 미국문화원에 출퇴근을 하자면 양정은 너무 었기 때문이다. 당시 대청동 집을 방문한 적이 있던 임실근은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선생님 댁에 가서는 너무 놀랐다. 그 당시 선생님 댁은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대청동 대청예식장 밑 골목 안 허름한 2층집 다다미 방에 조개탄 스토버가 방 가운데 하나 있었고, 어지럽게 널려있는 오래된 논문집과 잡다한 책들, 그리고 낡은 피아노 한 대를 빼고 나면 아무 가재도도 없어 보였다. 그렇게 좁은 방에 혜림, 혜승, 혜은, 혜광이 4자매와 사모님, 그리고 선생님과 가 같이 잠을 청하기란 만만치 않은 정소였다.

(임실근,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282쪽)

김순이의 회상에 의하면 최성묵이 미국문화원에 취직한 후에 그나마 생활이 좀 안정되었다. 미문화원에서는 월급을 2주 단위로 받았고 금액도 좀 많았다. 그러나 미문화원을 그만두고 부산 YMCA 총무를 하게 되면서는 다시 월급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고 한다. 김순이가 남편의 월급 봉투를 직접 받게 된 것은 1977년 부산중부교회 목사직을 맡게 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23. 부산 YMCA 총무를 맡다

미국문화원에서 1년 반 정도 일한 후 1972년 4월 부산 YMCA 총무로 취임했다. 최성목의 진보적 성향을 문제 삼았던 부산 YMCA 총회에서는 보수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과 진보적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치열했다. 전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정태성 장로와 그가 경인여대 총장이었고, 후자는 김길창 목사와 남성학원, 한성여대(현 한양대)의 김성우 목사와 교수 등이 중심이 되었다. 양대 세력은 총회에서 세대결의 결속을 이루고, 최성목은 장웅 장로(당시 부산교육대학 교수) 등이 와이즈맨 소속의 이사들과 함께 총회를 이끌며 설득했다. 결국 총회는 표결 끝에 가까스로 최성목의 총무 지명을 승인했다.

총무 취임 후 최성목은 열성적으로 사업에 몰두했다. 영봉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부산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를 함께 의논하는 영봉이론회를 만들었다. 또 YMCA의 대학생회를 조직했는데 영봉이라는 이름의 이 서클에 영봉이론회와 미국문화원 청년학생담당관으로 일할 때 함께 했던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유신체제 이후 중앙정보부는 학교에 압력을 가해 대학생 연합서클 등을 해체하려 했기 때문에 미국문화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서클들은 해산하거나 YMCA로 찾아와 활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 기독교의 대학생 조직은 1968년 KSCF로 통합이 되었지만 이 무렵에는 지방의 YMCA들이 청년지도력을 육성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유로 조금씩 대학생 조직을 부활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KSCF의 집행부도 묵인하는 형편이었다. 부산의 경우, 대학생운동의 실질적 지도력인 최성목이 YMCA에 있는 이상 그곳을 중심으로 재조직되는 것이 필요했다. 후에 중부교회 청년부의 중심 인물들인 김영일, 조성삼, 임실근, 조태원, 이승원, 정외영 등이 모두 최성목의 총무 재임 중에 YMCA 대학부에서 활동했다. 당시 YMCA 대학부에 모여 있던 서클들에 대해 박상도는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징 있는 성격의 서클을 말씀드리면 홍사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홍사단은 자기들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죠. 성야회라든지 한빛회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주로 부산시 대학들 부산대, 수산대, 동아대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의 자연스런 친목, 봉사 동아리였습니다. 영어회화 서클도 연합서클인데 영어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 그것이 16개 정도였는데 15개는 그러한 각자의 성격이 있었고 ... 그 중 한 서클이 최목사가 만든 YMCA 대학부 클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YMCA와 목적을 같이하는 의식있는 목적의 서클로 출발하고 같이 활동하였고 그것의 주축이 조태원, 정외영, 김영일, 최학봉, 임실근, 이승원이 함께하고 처음부터 의식 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

... 미문화원, 부산시 에 있던 것을 제가 YMCA로 끌어 모았습
여서 하는 활동이지만 그 중에서도 생각이 괜찮은 학생들이 있었
가 처음부터 YMCA와 함께 의식 있는 활동을 하려고 모인 학생들
(박상도 <술/차성환 면담, 2009).

력은 세부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학생들의 자율
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영봉은 이화여대 사회사업학
지역 결인 및 불우청소년 실태조사를 하기도 하고, 부산지역대학생협의
했다. 또 일본 청산학원대학과 상호 교류사업을 하기도 했다. 특히 유
입한 이후에는 대학생들의 활동은 정보기관의 감시와 이사회들의 간섭 등 연
제를 받았는데 최성묵은 음양으로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최성묵은 젊은 대학생들이 새로운 세계에 눈뜰 수 있도록 이끌면서도 권
이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는 자세로 임하였다. 최
들에게 지도자로서보다는 친<처럼 다가가기를 원했던 것 같다. 그는 친
거리낌 없이 어울렸고 딱딱한 장소가 아닌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목사로서 술
를 하는 것은 상당한 시비거리가 되는 문제였다. 최성묵이 후에 목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렇지만 최성묵은 별로 개의치 않았다. 최성
이 개인적 기호 때문이 아니었던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는 술
때는 술, 담배를 입에 댄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술, 담배에 대한 대략
두 가지였던 것 같다.

하나는 젊은이나 일반인과 어울리고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다. 또 하나는 젊은이들은 교회의 계
율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경직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다. 크리스도의 정신에
따라 사는 실천은 없으면서 형식적 계율만 지키면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세
태에 대한 비판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싶었다. 그렇게 젊은 학생들
과 허물없이 어울리면서 최성묵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그는 YMCA 대학생회장을 했던
임실근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선생님은 나에게 '로마클럽 보고서'를 통해 <의 재반 문제(자원의 고갈, 환경문제,
인<의 폭발과 식량문제)와 엘빈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 드러커의 '단절의 시대' 등 탁
월한 예지력을 지닌 대표적인 미래학자와 새로운 관점의 경영학 등에 흥미를 가지도록
도와 주셨다. 또한 선생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 '지붕 위의 바이올린'

등 당시에 ~~김대중~~ 일깨워주셨다. 특히 선생은 1960년대 “청
년문화운동(루터 킹 목사 이야기), 공업화와 산업
사회의 ~~김대중~~ 등 당시 나로서는 호기심과 자존심이 ~~김대중~~ 못하는
부분을 ~~김대중~~ 처음 밤샘을 하면서 전공보다도 더욱 흥
(임실 ~~김대중~~ 기다리며』, 282쪽)

최성목은 YMCA 총무로 취임했던 1972년 그 해 10월에 대령 박정화는 갑작스
레 헌법 개정 중단시키고 계엄령과 함께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유신쿠데타였
다. 이 때 선포된 유신헌법은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삼권분립의 원리를 부정하
여 대령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독재헌법이었다. 야당정치인들이 군인들에게 끌려가 초
죽음이 되도록 고문을 당한 것도 이때였다. 뒤이어 앵무새 언론과 어용 지식인을 총동원
한 유신 찬양 홍보가 일상적으로 되풀이되었다. 춥고 어두운 정치의 겨울이 시작되었다.
모두들 공포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렇게 살벌한 시기인 1972년 12월에
당시 서울에서 야학운동을 하고 있던 김성재가 부산 YMCA로 최성목 총무를 찾아왔다.
용건은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신앙고백서의 발표에 동참하도록 부탁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신이 선포되자 문동환, 안병무, 현영학 교수 등 신학자들이 나치체제에 거했던 독일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처럼 단순한 반대 성명서가 아닌 신앙고백서를 발표하자고 뜻
을 모았다. 이 선언은 후에 <한국그리스도인의 신학적 고백>으로 발표되어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김성재의 부탁에 대해 최성목은 유신체제는 군사독재의 장기집권
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앙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의한 체제이므로 당연히 반대하며
서울에서 추진하는 일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위임하며 필요하다면 서울에도 가겠다고 약
속했다.

해가 바뀌어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해 10월 2일 서
울대학교 문리대에서 최초의 유신반대 학생시위가 일어났다. 그러자 시위는 곧 전국 각
대학으로 번졌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장준하, 백기완 등 재야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유신
헌법 개정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신민당 전국 국회의원을 지냈
고 장준하 선생과 가까운 박재우 씨가 개헌청원 서명용지를 가지고 부산으로 와서 박상
도를 만나 교계와의 연결을 부탁했다. 박상도의 주선으로 심응섭 목사, 임기윤 목사, 최
성목 총무 등이 연결되었다. 그러나 개헌청원서명운동은 박 정권이 긴급조치 제1호를 선
포하여 강경 탄압함으로써 지속되지는 못했다.

1974년 4월 이른바 ‘민청학련사건’이 터졌다. 박 정권은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하여 엄청
나게 많은 사람들을 검거했다. 부산 교계에서는 차선각, 조성삼, 황대봉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다. 당시 KSCF 간사로 있던 이직형도 붙들려갔다. 부산대학교에서



은 졸업생인 김재규를 비롯해서 학생 5... 원
 주교장 지학순 주교도 체포되었다. 1월 30
 일 천주교 부산교에서는 '조국과 정의'가 열
 려다. 천주교정의현전국사제단이 이 '자유언
 론실천선언'이 나오고 동아일보 광고탄...
 국적으로 민주화운동이 크게 고양되었다
 학생, 지식인 등 각계각층의 민주화 열
 해가 바뀌어 1975년 1월 30일에는 송
 '지 주교를 석방하라'고 적힌 현수막이
 가 송기인 신부를 찾아왔다. 심 목사는
 짚고 전포성당을 찾았다. 심 목사는 서...
 만들어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송기인, 손덕만 신부...
 창용, 김광일, 유기선 장로, 최성목 총...
 결성하였다가 후에 부산인권선교협의회...
 산인권선교협의회의 활동이 최성목이 Y...
 이 모임은 주로 보수동의 유기선(전 서...
 자주 이루어졌다.

이런 가운데서도 최성목은 YMCA를...
 앞세워 사회체육시민운동을 시작했다

권력의 탄압과 이에 맞선 저 이... YMCA 이사회는 최성목 총무
 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다. 중앙... 협의회 활동을 문제 삼아 최성
 목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가해왔다... 산 제일의 재력가로 알려진 성장조츄측언및옥압끼
 기업의 정태성 장로나 기독교방송의 은영기 국장 같은 보수적인 이사들은 "역시 진보적
 인

가체벌동창환

년들과 만나 술 사주고, 커피 사주는 활동비로 나가고 집에는 제대로 생활비를 보낸다.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김순이는 크게 불평하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 열심히 일을 해 나갔다. 그리고 서울에서 그랬던 것처럼 12시 직전에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따뜻한 밥과 국을 준비해서 먹게 하고 서로가 하루의 일을 다 이야기하고서야 잠을 잤다.

다음날 낮에 김순이는 가사일을 하면서도 전날 밤에 남편에게 들었던 여러 이야기를 되새기면서 나름대로 분석해 보는 버릇이 생겼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의 이야기를 생각하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충고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 최성묵은 김순이의 생각이 신중하게 적혀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당신은 귀신이다. 당신이 말한 것과 똑같더라”고 감탄하면서 “당신이 많이 배웠으면 나라를 팔아먹었을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부부간에 대화하는 습관은 해외로 출장을 갔을 때도 이어져서 출장 중에도 최성묵은 매일처럼 엽서를 써서 아내에게 보냈다. 끝머리에는 항상 “당신의 默”이라는 문구와 함께.

24. 중부교회 전도사로 가다

YMCA 총무를 그만 둔 후 최성묵은 다시 새로운 일터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즈음 용두산공원 앞에 있던 모 기계공고에서 최성묵을 교장으로 초빙하는 제안이 들어왔다. 그 학교의 이사장은 고령의 노인이었는데 자신을 대리해서 학교 전반을 관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가 최성묵을 추천받고 직접 면담을 하게 되었다. 면담에서 이사장은 대단히 만족해하며 최성묵에게 교장직을 맡아 줄 것을 제의하면서 괴정에 있는 사택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이도 면담 결과를 전해 듣고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부부가 그 제안을 수락하자는데 합의했는데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일이 생겼다.

어느날 김순이가 대청동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백발의 노인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오더니 여기가 최성묵의 집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 자기가 중부교회 장로인데 두 부부와 함께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다는 것이었다. 그가 바로 캐나다에서 지원을 받아 중부교회를 설립한 권위경 장로였다. 권위경 장로는 최성묵이 설교를 하거나 성경공부를 지도하기 위해 가끔 중부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를 눈여겨 보고 있다가 심용섭 목사의 후임으로 초빙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아마 미리 연락을 했던지 최성묵도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 세 사람이 방안에 앉자 먼저 권위경 장로가 함께 기도하자면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찌나 간절하고 심금을 울리던지 끝내는 부부가 모두 울고 말았다.

▣ 장로는 하느님이 중부교회를 위해 최성묵과 같은 목자를 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한다는 취지의 기도를 간절하게 올렸다.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앞에서 중부교회로 갈 수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김순이는 고령의 노인이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이 벌을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그래서 부부는 생각을 바꾸어 중부교회로 가기로 합의했다. 원래 최성묵은 젊을 때는 학생운동을 지도하는데 헌신하고 목회는 나이가 많이 되었을 때 무보수로 봉사할 생각으로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 부딪쳐 생각을 바꾸었다.

이 무렵 1976년 1월에 YMCA 대학생부는 51명의 청년 학생이 참가한 겨울행군대회를 하게 되었다. YMCA 대학생부는 해마다 여름에는 룩에서, 겨울에는 제주도에서 열흘 코스의 행군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었다. 오전, 오후 각 5km씩 하루 10km를 걷고 저녁에는 민박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토론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자는 박상도였고 최성묵도 동행했다. 행군 중 어느날 저녁 서귀포의 한 선술집에 학생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최성묵은 술잔을 들면서 “유신 반대”를 외쳤다. 이 ▣호는 다행스럽게 술집 안에 있던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술집 주인과 손님들이 마치 유신반대 집회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다. 술집 주인은 무료로 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행군대회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 달 이른바 ‘책방골목’지 사건이 발생했다.

25. ‘책방골목’지 사건

‘책방골목’은 중부교회 대학생부가 발간하는 회지의 이름이다. 1976년 2월 10일 경찰은 ‘책방골목’에 실린 글의 용을 문제 삼아 중부교회의 교인인 대학생 3명을 ▣속했다. ▣속자는 인사말을 쓴 부산대학생 조태원, 대학생회장인 동아대학생 이태성, 회지를 배포한 부산대학생 김영일이었는데 그들 모두 YMCA의 핵심 인물이었다. 회지 용 중 인사말에서 문제 삼은 대목은 “... 힘써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시키자. 한국적이니 유신이니 따위는 말고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눈으로 썬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자. ...”라는 것이었다.

학생들을 연행한 후 서부경찰서의 형사들은 다음날 박상도의 집을 덮쳐 가택수색을 해서 일기장 등을 압수하고 대연동에 있는 중앙정보부 대연동 분실로 연행했다. 그리고 빨간 백열등만 켜져 있는 지하실에서 수사관에게 심문을 받았다. 수사관은 박상도가 순진한 아이들을 제주도 등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세뇌시킨 원흉이라고 몰아붙였다. 박상도

는 인사말의 용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따졌다. 그런 언쟁을 하는 중에 또 다른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머리 뒤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소리를 면서 “이런 놈들은 다 총을 쏘서 죽여야 한다. 죽여도 어느 놈들이 알겠느냐”라고 지껄이면서 공포감을 조성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심문을 한 후 고위급인 듯한 인물이 들어와 박상도에게 혼시를 했다. 요지는 “순진한 학생들을 선동해서 희생시키지 말라. 학생들의 부모들이 어떻게겠느냐? 당신들이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다. 그리 “아이들을 경찰에 넘길 테니 신병 인수해 가고 잘 지도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하면서 잘 지도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했다. 그래서 각서를 쓰고 그날 밤에 풀려 다.

다음날 박상도는 부산시경에 갔더니 학생들을 면회만 시켜주고 신병 인수는 해 않았다. 왜 신병 인수를 안 해 주느냐고 따졌더니 상부의 지시가 있어야 하니 기다 라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교도소로 넘어간 것을 알았다. 이 사건의 변론은 김광일 사가 무료로 맡아주었다. 세 학생은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책방골목’지 은 부산에서 긴급조치 9호가 적용된 첫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당초에 중앙정보부가 생들을 훈방하려 했다가 YMCA 중심의 학생활동이 활성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위해서는 초반에 공포감을 심어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방침이 바뀐 것으로 생각된

1976년 1월 첫 주에 있었던 최성묵의 중부교회 전도사 취임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루어졌다. 심응섭 목사는 비록 고령이었지만 한신대학교 김재준 박사의 사상을 따 분이였다. 최성묵을 이해하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자 우선 전도사로 임명했다. 당시 성묵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다. 그렇지만 최성묵은 대학생, 청년에 대한 지 함께 성경도 가르치고 때때로 설교도 하면서 많은 일을 맡아 나갔다.

‘책방골목’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엠네스티 부산지부가 결 었다. 그 이전에는 부산의 작가 김정한 선생이 엠네스티 한국지부의 위원으로 계실 었다. 이에 김정한, 김광일, 최성묵, 박상도, 노경규 등은 1976년 말 엠네스티 부산지 결성했다. 엠네스티의 한국 양심수 지원계획에 따라 최성묵은 긴급조치와 반공법 혐의로 대 교도소에 속되어 있던 백현국을 지원했다. 백현국은 대 민주화운동의 은 지도자로서 출소 후에도 중부교회와 관계를 가지면서 대 지역의 중요한 문제 함께 의논하곤 했다.

1976년에 최성묵은 목사 안수를 받고자 했으나 당시 기독교장로회 경남노회는 안수를 허락하지 않았다. 노회의 성원 중 창녕의 배성근 목사와 진주의 강명찬 등이 최성묵이 술, 담배를 한다는 이유로 준목 허락을 거부하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 수를 받으려면 술, 담배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 했다. 최성묵은 각서를 그러나 각서를 제출했음에도 그 해 심사를 못하고 다음 해 밀양남부교회에서 겨우

되었다. 경
인 문제는
부의 정

26. 중

이런 우
이어 1977
로서 안정
종로 5가의
접 연계할

1977년 4월 15일 부산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
은 더욱 그 열기를 더해 갔다.

최성묵은 부산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의 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1977년 6월에는 부산교회는 주제
로 김정환 목사의 '민족문화의 전통과 현대'라는 주제로 '민
족자주적 통일론'이라는 주제를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
한완상, 김동길, 김찬국, 문동환, 김찬국 등이 강연하였다. 이
러한 강연회를 통해 당시 부산의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강연회 외에도 청년회 회원들이 모여 살던 만
덕동 이주촌에 회원들이 방을 얻어 생활하는 등 파헤친 보고서를
회지에 게재했다. 또 회원들은 부산에 있는 다른 교회를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는데 당시 대부분의 기장교회는 정체성을 갖지 못
하고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최성묵이 목사로 취임한 이후 중부교회도 민주화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는 민주인사들은 중부교회를 통해 부산 인사들과 접촉하고, 부
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중부교회를 통해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박상도,
김형기, 차선각, 박점룡 등 중요한 민주 인사들이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각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양서협동조합운동(양협
운동)이다. 양협은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모인 청년그룹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책을 매개
로 한 소비자협동조합운동이다. 양협은 당시의 정세에서 민주화운동의 대중조직의 역할

을 하게 되었다. 1977년 11월부터 중부교회에서 준비를 시작하고 1978년
거쳐 설립된 양협은 당시 정확한 정보와 새로운 문화에 목말라하던 시
물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양협은 곧 전국의 다른 도시에도 부산, 서울, 대구, 수원, 울산 등에 설립되어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촉
했다.

또 이 시기에 중부교회 학생 김언곤, 이승원이 김대중을 면회하기 위
찾아 갔다가 그 주변을 배회하고 온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보기관에
을 퇴학시키라는 압력을 행사했다. 이에 박상도가 나서서 만약 학생들
학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겠다고 싸웠으나 각기 학교에서 무기정학
받는 사건이 있었다.

최성묵은 언제나 젊은이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면서 대화했다. 다방에
은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양말 속에 감춰둔 담배를 먼저 꺼 피우면
교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기호에 따라
했다. 때로는 국제시장의 막걸리집에서 젊은이들과 늦도록 시국과 인생
“나는 목사가 아니라 머슴사”라며 술잔을 부딪쳤다.

최성묵이 중부교회 목사에 취임하면서 김순이는 생전 처음으로 월급
게 되었다. 게다가 사택도 제공되었으므로 결혼 후 가장 안정된 생활을
가 마련되었다. 당시 중부교회 목사 급여는 처음에 7만원을 받았는데
활이 어렵다는 당회원들의 판단에 따라 10만원으로 올려 주었다. 최성
대의 활동이 워낙 많았으므로 교회 에서 처리해야 할 많은 일들은
떨어졌다. 김순이는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다.

1978년에 들어서면서 박 정권에 저 하는 민주화운동은 한층 거세어

1978년 4월 17일 중부교회 청년회원 정외영, 이성동, 전중근, 서연자
들에게 우편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교정에도 살포한 사건이 일어났다
민주투쟁선언문”이라는 제목의 이 유인물은 반민주적 탄압중지, 긴급조
농민의 권익 방해 및 인권침해 중지, 언론탄압 중지 등을 요 구 하였다.
동, 전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정외영은 최성묵의 도움으로 서울로
해 8월 전주에서 열린 기장전국청년대회에 참가했다가 검거되었다. 최
경과보고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5월 13일 불 구 속 입건되었다. 이
히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방청을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정
촉매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78년 5월 18일에는 동일방직 노동자 추송래 등 7명이 부산에서 ~~동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영태 당시 섬유노동조위원장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살포하다가 체

포, ㄹ속되었다.

1978년 7월 4일에는 부산대학생 민주화운동 와 창문 등에 “유신철폐” 등의 반체제 문구와 함께 1978년 7월 7일에는 경찰이 송기인 신부에 대해 구속 수했다. 1978년 10월 19일 동일방직 법정에서 방청객과 경찰이 충돌하여 부산지부 간사) 등 4명이 연행되고 1978년에는 겨울맞이 부흥집회에서 행한 순 목사를 부산시경에서 긴급조치

이처럼 민주화운동이 치열해지면서 정부가 집중되었던 목을 감시하는 중부서의 황 형사는 부목사라는 불었으며 나중에는 최 목사의 인격

이런 가운데서도 1977년부터 최성목이 준비위원장을 맡기로 했는데 방해했다. 그러자 최성목은 서슴없이 동수 박사에게 ‘생명의 전화’가 창립될 수 있었다. 이 사람들의 고민 상담해 주는 세계적 사회운동으로 창립하여 현재까지 있다.

1979년에 들어서 정국은 더욱 긴박해졌다. 1978년 12월에 치러진 민심이 유신체제를 떠났음을 야당의 총 득표율이 1.1%나 앞섰던 것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이 해 5월 30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최성목과 민주회복을 요하는 총재로 당선되었다.

이보다 앞서 3월 1일에는 함석헌, 유인사들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의 결성을 선포하고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을 배포한 혐의로 중부교회의 조태원과 노경규가 연행되어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ㄹ속되었고 최성목 목사도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5월 7일에는 기장 청년회 전국상임총무를 맡고 있던 중부교회 교인 최준영을 중부교회가 연행하기도 했다.

1979년 6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카터의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정책, 한국의 핵개발정책으로 인해 한미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는데 카터의 방한으로 의견상 봉합된 듯한 인상을 주었으나 면으로는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7월 23일 김영삼 총재는 임시국회의 대표 질문에서 유신헌법 개정을 위한 헌법특위의 ㄹ성을 제안했다. 8월 13일 사업주의 폐업에 의하여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는 YH무

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경찰이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여성노동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신민당은 이에 의하는 농성투쟁에 들어갔다. 8월에 신민당의 일부 지²당 위원장들이 5월의 신민당 전당대회에 법적 하자가 있다면서 '총재단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냈고 9월 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이를 이유 있다고 가처분 결정을 냈다. 이로써 신민당의 분을 노리는 박정권의 정치공작이 ²체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영삼 총재는 1979년 9월 15일 미국 뉴욕타임즈지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유신헌법과 미국의 대한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신정권은 김영삼의 발언은 국위를 손상시키고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비난하면서 10월 4일 국회에서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제명처분을 강행했다. 김영삼 총재는 기자회견을 갖고 "공화당 정권은 오늘 국회를 폭력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었으며, 이제 이 나라에는 행정, 사법, 입법 어디에도 민주정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입증시켰다"고 비난하고 "어떤 탄압이 있더라도 민주투쟁을 향한 우리의 목표는 중단될 수 없으며, 나의 신념과 소신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제 유신정권과 김영삼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27. 부마 쟁의 폭발

부마 쟁의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왔다.

1979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수천 명의 부산대학생들이 교에서 유신반대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오후 2시경부터 도심인 광복동, 창선동, 대청동, 중앙동 일대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 속에 전개되었고 경찰은 시민 속에서 고립되어 갔다. 저녁 6시가 지나자 시위는 퇴근하는 회사원, 노동자 등은 물론이고 고교생까지 합류한 민중 쟁의로 발전했다. 시위대는 "유신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면서 경찰의 곤봉과 최루탄 공격에 맞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새벽 1시경까지 11개의 파출소를 파괴했다. 17일에는 동아 대학생들의 교 시위가 있었고 저녁 6시부터 새벽 1시 30분쯤까지 시위가 벌어져 중², 서², 동² 지역을 중심으로 21개 파출소, 경찰차량 18대, 경남도청, 중부세무서, KBS, MBC, 부산일보, 일부 동사무소 등이 파괴, 투석되었다. 그러자, 유신정권은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지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했다. 계엄군은 거리에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그러나 18일 저녁 8시경, 남포동에서 시민들은 다시 집결하여 시청을 향해 시위를 벌였고 시청 앞에서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해산되었다. 이로써 사흘에 걸친 부산시민들의 쟁의는 유신정권이 보낸 공수부대의 잔혹한 폭력으로 막을 댔다.

부산지역에 계엄령이 내려진 1979년 10월 18일 오전부터 경남대학생들은 시국 토론 등을 하다가 오후 2시경 학교 측의 휴교조치에 반발하면서 교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오후 5시경부터 3·15의거탑 앞에 모여 시위를 전개했고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마산의 중심가인 창동, 부림시장, 오동동, 불종거리 등에서 퇴근하는 노동자 등 시민들이 합류했고 곧 민중쟁으로 발전했다. 시위대는 주택과 상가의 전등불을 끄게 하고 “박정희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 등을 외치면서 새벽 3시경까지 공화당사, 박종규의 저택, 마산경찰서, 마산세무서, 7개 파출소 등을 파괴했다. 19일 오후 5시경 부산에 파견된 공수부대 1개 여단이 마산으로 급파된 가운데 저녁 8시경부터 자연스럽게 모인 민중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민중들은 군인과 경찰의 진압에 맞서 20일 새벽 3시경까지 마산MBC, 전신전화국, 파출소, 동사무소 등을 공격했다. 유신정권은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과 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선포했다.

부마쟁이 처음 일어난 10월 16일 오후 4시경 최성묵은 서재에서 시위의 함성을 들었다. 나가보니 시민들은 시위를 열렬히 환영했다. 다음날까지 그는 시위대를 따라다니면서 상황을 관찰했다. 10월 18일 자정을 기해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10월 20일 새벽 서울 KNCC 인권위원회의 손학규 간사가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1시경 부산의 재야인사들이 보수동의 유기선 소아과 2층에 모였다. 맨 나중에 최성묵이 들어오면서 손학규를 데리고 왔다. 그들은 부산의 실상을 서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보고 들은 것을 손 간사에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 중부교회 앞 대도다방으로 갔다. 여기서 그들(최성묵, 박상도, 김형기, 손학규, 김병성, 김영일)은 뒤따라온 형사들에게 모두 체포되었다. 이들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서 가혹한 수사를 받았다. 합수부는 부마쟁이 배후 조직도를 그렸는데, 총책은 최성묵, 자금책은 김광일, 김형기는 학원담당책, 박상도는 교회 및 노동 담당책, 그리고 김형기 밑으로 이상록, 고희석 계열, 박상도 밑에는 조태원, 김영일 등이었다. 말하자면 양서협동조합을 배후조직으로 만들고 조직도를 그렸지만 터무니없는 그림이었다. 부마쟁이는 학생시위를 제외하면 이후의 과정은 거의 자연발생적인 것이었고 양서협동조합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총책으로 지목된 최성묵은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처음 중부서에서 눈을 감기고는 옛 진궐청 건물인 보안사로 데려갔어요. 저는 큰 방에 혼자 있었는데 여기 저기서 고희소리·비명소리·신문하는 소리 등이 들리고 시끌벅적했어요. 서울 정보부에서 왔다는 형사가 한명 들어와서는 007가방을 꺼 김일성을 최고 위 에다 그려놓고 엠네스터·KNCC 등 단체 등을 그 밑에 그리고는 부산 최목사에 지령해서 데모를 조직적으로 전개했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무슨 책, 누궐는 무슨 책하며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 그네들의 상투적 수법입니다만 작품은 미리 그려 놓고 끼

위 맞춰나가는 것이었어요. 차트도 몇 개씩이
른 것 그런 식이니까요.(최성묵의 증언, 『부마』)

최성묵은 주로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을 받
다. 그게 안타까워서 최성묵은 모든 책임을
사람을 잡지 말라고 수사관에게 말했다. 시
최성묵은 모든 것을 각오한 듯 담담하고 의연
찾서 나갔다.

그런데 10월 26일 누⁷도 상상하지 못한 대⁷령 박정화의 죽음
었다. 부마 쟁을 북한의 지령으로 일어난 폭동으로 조작하려던
물거품이 되었다. 최성묵과 함께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10월 27일
로 최성묵은 생사의 경계를 오간 셈이었다. 그러나 부마 쟁은
격과 환희로 다가왔던 사건이었다.

전국이 유신이라는 강압정치의 압력에 눌려있으면서도 민주화
었으나 이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는 사람은 몇몇 식자층 뿐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는 정말 황홀
이 들었습니다. 계기나 결과를 떠나 술에 취한 기분이었어요. 끝
오다가 좌절하고 좌절하면서 그 거대한 움직임에 당해보니 실로
확신 같은 것이 솟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최성묵의 증언, 『부
료집』, 154쪽)

28. 뇌졸중으로 쓰러지다

유신체제의 붕괴로 민주화가 될 거라는 기대는 12·12쿠데타를 ~~한~~ 신군부의 등장으로
점차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 신군부와 민주화세력의 대치 속에 불안한 정국이 반년 간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최성묵은 동교동의 김대중 전 의원을 대⁷의 백현국 등과 함께
찾아가서 시국을 의논하기도 했다. 대⁷ 지역의 학생지도부와 흥정회(계명대 학생운동단

체) 관련자들은 5·17계엄확대 이후 김대중, 최성목의 관계와 그 지위 확대라는 신군부의 쿠데타는 민주화세력이나 이 쿠데타는 광주에서 5·18민중 쟁쟁한 유인물을 활동가들이 배포하다

5·18 쟁쟁이 막바지로 치닫던 5월 25일 교회로 들이닥쳐 박상도를 검거하려 했다. 최성목은 신변의 위협을 직감하고 바로는 김성재의 집에 있었는데 밤에 차선각을 한잔 하고 YMCA호텔에서 주무시기로

다음 날 아침, 박상도가 호텔방으로 갔을 위하면서 어이, 하고 손을 드는 순간 쓰나 갈 수도 없어 난감하던 중 마침 이규가 되어 급히 택시를 불러 세브란스병원 스병원 과의 혈압 권위자 이용 박사 고 했을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 참으로

박상도는 최성목의 곁을 떠날 수 없게 됐다. 그 때가 6월이라 그나마 밤이슬을 흘릴 하자면 가족이 와야 할 것 같아 김순스병원으로 왔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에서 최성목의 누님집 근처에 방을 얻어 김순스병원에서 퇴원할 당시에 최성목은 보행으로 서서히 회복되어갔다. 그리고 5·17계엄이 풀린 뒤 5월 반이 지난 1980년 7월 말쯤에 최성목은 부산으로 돌아왔다. 최성목이 돌아올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사정이 있었다.

신군부는 쿠데타 후 각 지역별로 민주화세력 모두 붙잡아 조사했다. 집권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 그런데 1980년 7월 26일 보안사령부 부산분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임기운 목사가 3일 만인 21일 국군통합병원으로 옮겨졌다가 7월 26일 사망했다. 그의 죽음은 아직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은데 부인의 목격담에 의하면 뒷머리

왼쪽이 3센티 가량 찢어져 있었고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타살 의혹이 제기되었다. 임목사의 죽음으로 난처한 입장에 빠진 최성묵은 최성묵에 대한 수배의 끈을 늦추어 버렸고 그는 교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수배 중에 얻은 병으로 최성묵은 수년간 한두 달에 한번 씩 세브란스병원으로 병원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고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했다. 조금만 과로해도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 의사들은 그에게 민주화 운동을 그만 두고 목회에만 전념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29. 부림사건과 미문화원방화사건

광주학살의 피비린을 풍기며 전두환 군부집단은 권력을 탈취하여 이른바 제5공화국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 전체가 폭력에 의한 왜곡을 경험했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잠재적 도전세력을 거세하기로 작정하고 전국에 걸쳐 용공조작사건을 만들었다.

부산에서는 1981년 9월 이른바 '부림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부산의 학생, 종교, 재야세력을 망라한 22명을 검거하고 이들이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여 거짓 자백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그 용은 너무나 영성하게 조작된 것이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대개 1970년대 중부교회와 양서협동조합과 관련한 사람들로서 최성묵과 가까운 사람들이 많았다. 최성묵은 이들의 가족들과 함께 석방운동에 적극 나섰다. 이 사건에서 노무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아 법정에서 맹활약을 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 해인 1982년 3월에는 고신대, 부산대, 부산여대 학생들이 연루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5·18 쟁에 참여했다가 탈출하여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유인물을 만들어 살포했던 김현장이 문부식 등 부산의 대학생들과 만나면서 계획된 것이었다. 5·18 쟁을 겪으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라는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 사건은 그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반공 친미의식에 젖어있는 대중은 물론이요 공공연히 반미를 건 적이 없었던 민주화운동 진영에도 충격적이었다. 사회운동에서도 이 사건은 '조직적 반미 자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받기도 하고, '돌출적이고 비대중적인 모험주의'로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이 사건에 주동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보수교단의 직영 신학교인 고려신학대학의 학생들이라는 점은 한국 기독교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문부식은 고신대 신학과 3학년을 다니다가 휴학 중이었고, 그의 애인이자 동지였던 김은숙은 고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2학년생이었으며 그 외에도 고신대생이 많았다. 김은숙, 문부식은 중부교회에 출석했

고 김은숙은 주일학교 교사도 지냈다. 또 양서협동조합에도 참여했다. 그들은 중부교회에 다니면서 최성묵의 설교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최성묵은 “미친 운전수가 운전하는 것을 방관해서 버스의 승객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해서 안 되고 운전수를 제거해야 한다.”고 한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를 자주 인용했다. 그리고 김은숙은 최성묵의 은사였던 김정준 박사의 집안 손녀이기도 했다. 사건의 주범으로 검거된 김현장도 광주 사람이었지만 자주 부산 중부교회를 찾았고 최성묵 목사와의 사이였다. 또한 중부교회 청년회의 허진수가 사건에 연루되어 3속 기소되기도 했다.

물론 최성묵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 그렇지만 부산미문화원사건의 수사에서도 경찰은 최성묵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김현장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이들은 마지막에는 부산 중부교회 목사인 최성묵 목사님과의 관계를 추궁했다. 용돈을 최성묵 목사로부터 얼마를 받았느냐고 추궁하길래 1천만원 밖에 안주더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 놈이 1천원이라고 잘못 듣고는 “어느 놈이 돈 1천원을 줄 턱이 있노, 거짓말 아이가?”하고 되묻기에 나는 피식 웃으면서 “1천만원이요.”하고 끝의 요자를 길게 빼주었다. (김현장, 『빈체시오, 살아서 증언하라』, 352쪽)

30. 중부교회 분사태

연이은 부림사건과 부산미문화원사건으로 인해 부산의 민주화운동은 용단폭격을 당한 것처럼 쑥대밭이 되어 버렸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1982년 9월부터 중부교회에서 분이 일어났다. 이 분이 일어나기 전에 중부교회를 둘러싸고 두 가지 전조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중부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수교단의 공격이었다.

중부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당국의 압력은 여러 형태로 가해졌는데 이로 인해 상당수의 교인들이 교회 출석을 꺼리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기관원들이 교인들을 체크하고 성분을 분석했다고 한다.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출입을 기피하게 되었다. 예컨대 신이건은 자신의 경험을 언급했는데 정부기관의 인사가 찾아와서 “당신은 동생이군의 요직에 있으면서 진급을 해야 하는데 문제의 교회, 더구나 반정부운동을 하는 교회에 출석하여 최 목사를 돕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불이익이 가더라도 후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협박을 했다. 또 다른 사례가 이영우 씨의 경우이다. 그는 당시 부산은행 대리로 근무 중이었는데 본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이유 없이 서울지점으로

전보되었다. 그때가 1982년 6월경이었다. 정상적인 관례를 벗어난 인사였다. 그래서 인사 담당 상무에게 이 인사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상무는 전화로 “이유는 말할 수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조용히 있어 달라.”고 말했다. 그때는 부산은행 본점에도 정보기관원이 상주하고 있던 시절이었다. 이영우 씨는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서울 근무를 2년 4개월 간 하면서 중부교회에는 출석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전조는 보수교단의 노골적인 인신공격이었다. 분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전 해인 1981년 11월에 한국기독교회 정화위원회 위원장 이확실 목사는 ‘증언 1’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는데 여기서 그는 “5관이 마비”되고 “정풍도 모르는” “소위 인권과 소수의 무리들”이 “민중 운운하면서 민중을 팔아먹는 싹꾼들의 작태를 묵인할 수 없어 이리떼의 탈을 벗겨 진실된 교계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매도하였다. 그 용을 보면 박형규 목사 등이 술, 담배를 하며 놀았다, 기장 총회 선거에서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는 등인데 최성묵과 관련해서는 어린 학생들은 감옥에 보 고 자기는 뒤로 빠지면서 수감된 사람들의 궤대책도 안 세우는 의리 없는 사람이라는 것, 총회장 선거에서 강 모 목사의 선거운동 자금으로 해운대 AID 아파트 한 채를 사 놓았다는 등 터무니없고 비열한 악선전을 늘어놓은 것이 눈에 띈다.

이런 상황에서 1982년 9월 5일 중부교회 회계집사 최성이 최성묵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퇴진을 요구했다. 그가 열거한 최성묵의 비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교회담임목사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최성묵은 부산신학교 교수로 겸직하면서 교회보다 학교에 더 충성한다. 둘째, 1980년에 강명찬 목사가 총회 부회장으로 출마했을 때 최성묵이 전국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셋째, 주초(酒草, 술과 담배)로 인해 중병을 치른 최성묵이 최근에도 계속하고 있으니 목사의 품위를 손상시킨다. 넷째, 대관부 회계장부를 최성묵이 갖고 있고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 다섯째, 최성 집사가 교회일로 과로하여 앓고 있어도 심방을 오지 않았다. 여섯째, 정기제직회 때 예산의 사용에 대해 따지는 노령의 권사에게 최성묵이 폭언을 했다. 일곱째, 교회의 여성 사찰(집사)를 무상으로 사택의 식모로 부렸다. 여덟째, 김순이가 교회 행정에 간여하여 문제를 일으킨다는 등 주로 교회 행정과 관련된 문제들이었다.

최성 집사의 유인물이 나온 그날 조성삼, 박철수 등 청년들은 모임을 갖고 교회의 분열과 와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최성 집사의 유인물과 최성묵의 행적을 검토한 결과 9월 9일 청년회 이름으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그 용은 추태의 장본인으로서 최성묵 목사와 최성 집사가 교회 전체에 공개 사과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최성묵에게도 비판적이었지만, 최성 집사의 행동에도 결코 동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날인 9월 10일 [redacted] 를 표명하였는데 일부 청년들이 최성 집사에게 비 [redacted] 집사는 심응섭 목사의 배후 조종으로 청년들을 사주

9월 11일, 9명의 청년 [redacted] 서는 주로 교회 행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최 [redacted] 집사의 행동에 대해서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으며 [redacted] 를 거론하여 교회의 혼란 상태를 더 심하게 했다고 지

9월 12일에는 최성목 [redacted] 대귀신이 들렸다고 매도했으며 같은 날 제직회가 열렸을 [redacted] 교회 사태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는 발언을 했다.

당시 서울제일교회는 [redacted] 가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다. 이 분구는 민주화운동에 앞장섰 [redacted] 위해 청와대가 지시하고 국군보안사령부가 중심이 되어 일 [redacted] 예배를 방해하고 급기야 박 목사나 그를 따르는 교인들을 교 [redacted] 이었다.

같은 날인 10월 9일 [redacted] 대화했는데 박순금 장로가 심응섭 목사님이 은퇴 후 교회를 [redacted] 야기한다, 최성 집사의 유인물과 청년들의 유인물은 대동소이하다 [redacted] 이에 청년들은 최성목의 사임을 요 [redacted] 하는 제2의 유인물을 전달했 [redacted] 8일까지 최 목사가 조건부 사의를 표명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고 [redacted] 불신은 더욱 깊어져 화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결국 9월 29 [redacted] 목이 사퇴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청년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한다.

이상의 경과를 보면 [redacted] 11일 사이에 청년들의 입장은 최성목의 사과를 요 [redacted] 하는 데서 사퇴를 요 [redacted] 로 바뀌었다. 이는 최성목이 청년들의 행동을 최성 집사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redacted] 것과 맞물리는 것이다. 적어도 초기에는 최성목과 청년들 사이의 관계는 대화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일주일어 지나면서 양자는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없는 대결상태로 변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청년들과 최성 집사의 입장이 나중에는 뒤섞여버렸지만 청년들이 제기했던 문제는 최성 집사와는 초점이 달랐다. 청년들은 10월 10일 네 번째 유인물을 발표하고 최성목의 사임을 거듭 요 [redacted]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최성목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성목은 인권, 민주운동을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도 [redacted] 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 실례로 이른바 '서울의 봄' 시기에 현실정치에 돌입하려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다. 또한 1979년 4월 국민연합의 성명서 등이 문제되어 최성목, 노경규, 조태원

이 모두 연행되었으나 주모자 격인 최성묵만 풀려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82년 2월 부림사건 ▶속자 가족들이 배포한 유인물에 최성묵이 이름을 넣도록 했다 문제가 되자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여 인간적 배신감을 주었다. 또 김순이를 ▶속자 가족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둘째, 8월~9월초까지 최성 집사의 폭로에 대해 청년들의 개입을 요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독단적인 흑백논리로 청년들을 비난했으며 분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기만적,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 심응섭 목사에 대한 배신, 최성 집사에 대한 심방 거부, 강명찬 목사의 총회장 선거운동, 대관부 재정문제, ▶창수 장로, 조문길 장로, 최경숙 장로, 사택 ▶입, 사찰집사의 대우, 인사문제 등을 제기했는데 대부분 최성 집사의 문제제기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의 유인물을 분석해 보면 먼저 위 세 가지 문제 중 두 번째 문제는 대립이 심화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생긴 것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들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관련자들 사이에 우선 사실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성묵은 최성 집사가 장로가 되고 싶었는데 탈락한 데 대한 원한과 국군보안사령부 상사 출신으로서 당국의 공작과 연계되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만약 중부교회에 행정적 문제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혹시 평소 최성묵의 태도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최성묵은 평소에 “나는 교회 부흥에는 자신이 없다.”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역점을 두고 활동하겠으니 나에게 팔방미인이 되어 달라는 주문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교를 제외한 교회의 웬만한 일은 김순이에게 맡기고 자신은 주로 바깥일에 전념했다.

세 가지 중 첫 번째 문제가 청년들이 핵심적으로 제기한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이는 관련된 청년들이 최성묵을 민주화운동의 지도자로서 신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들은 세 가지 사례를 비판하고 있는데 첫째 사례는 최성묵이 중부교회에 시무하면서 현실적인 정치에의 욕망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공언했는데 ‘서울의 봄’ 정국에서 다시 현실정치에 돌입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운동을 정치적 야심에 종속시킨 것이라는 비판이다. ‘서울의 봄’ 시기의 어떤 행동이 현실정치에 돌입하려는 것으로 비쳤는지 알 수 없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대 ▶의 백현국 등 청년들과 동교동을 찾아가서 김대중을 만난 것뿐이다.¹⁴⁾ 여기서 말하는 현실정치라는 것은 아마도 정당정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최성묵이 그런 야망을 가졌는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그의 말년에 있었던 신민당 참여의 과정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설혹 그런 의지를 가졌다 한들 그러한 비판은 당시 사회운동권에 만연해 있던 정치결벽증과 결부된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공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둘째 사례는 여러 차례 시국사건과 관련하여 대학생 등 힘이 약한 사람들만 ➤속되고 주모자 격인 최성묵은 한번도 감옥에 가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감옥에 간 학생들의 옥바라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¹⁵⁾

최성묵이 감옥을 가지 않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박상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최 목사님과 저하고 김광일 변호사를 예로 들면 부산에서 누➤보다 못지않게 70년대에 민주화 운동, 재야 운동에 제일 활발하게 중심으로 한 것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공교롭게도 한번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잡혀가면 수사기관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꼭 이간을 붙입니다. 거짓말을 시키며 사이를 어지게 합니다. 연행되어 갈 때마다 세뇌를 시킵니다. 우리 세 사람이 한 번도 감옥살이를 한 적이 없어요. 별 일도 안하는데 하부에 있는 학생들은 감옥에 갑니다. 중부에서는 조태원, 이태성, 김영일이 감옥 갔지요. 5·18 나고 난 뒤에도 김영일은 별 일도 안했는데 그 사람은 또 감옥에 가고 김광일, 최성묵, 박상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또 풀려났지요.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최 목사는 사쿠라다. 맨날 정보과 형사들이 같이 와서 같이 놀고 술도 먹고 맨날 잡혀가는 것은 너희들이고 최 목사가 잡혀가는 것 너희들 봤나? 최 목사는 사쿠라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지시켰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괜찮은데 무언가 어떤 사람을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들었던 모든 사실들이 한꺼번에 클로즈업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아니라 생각해도 어떤 상반되는 문제나 이해관계가 묘하게 접목되면 옛날의 것이 클로즈업되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박상도 ➤술/차성환 면담, 2009).

최성묵이나 김광일 같은 사람들이 ➤속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박상도는 지방의 정보기관이나 경찰의 전략으로 이해한다.

당국의 자기들의 전략입니다. 권력이라는 것은 그래요. 상 하부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
수록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되도
지역 책임자들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윗
명령이 떨어지도록 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스스로
는 확실하게 잡아넣을 수 있도록 하는 사건이 없었
만 건수가 여러 개 연결해보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지만 무언가 하나 하나를 가지고 꼭 집어 긴급조치
너무나 애매한 것입니다(박상도 ▶술/차성환 면담)

1982년 2월 부림사건 ▶속자 가족들이 배포한 유 나중
발뺨을 했다는 일은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 그러
하던 시기에 어떤 이유로 말을 바꾸었다고 해서 꼭
지가 있다. 그 시기에 많은 운동가들이 수사기관에서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사람을 보호하거나 가혹한
고해서 경찰에게 참말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
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최성묵의 운동 스타일일 수 있다. 최성묵은 운동을
성적자 아버지와는 다
른 언행을 보여주었다.

6월 쟁 때 최성묵은 대열의 선두에 서서 학생들
성묵은 중부교회에서 열기로 한 집회가 경찰의 방
벗고 와이셔츠 사이로 가슴과 팔뚝을 드러낸 채 분
망하여 달아났던 적도 있었다. 최성묵은 한없이 온화하다가도 잘못된 것을 보면 '최핏대'
라는 별명 그대로 진노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함과 성찰적 이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생각된다.

감옥에 간 학생들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최성묵이 엠네스티의 계획에 따라
대▶의 백현국을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예를 생각할
때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물론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달라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없
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었다.

어쨌든 최성 집사와 청년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를 반대했지만 두 세력은 하나로 엮
여졌고 그 배후에는 정보기관의 공작이 도사리고 있다고 최성묵은 생각했다. 이 사태
를 최성묵이 정치공작이라고 보았던 것은 평소 청년들과 ▶보다 가까웠던 그로서는 충
격과 배신감이 컸고 따라서 그의 의식 속에서 사태를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문제는 교회에서 공방이 이루어지다가 10월 하순 경에는 청년들이 기독교 장로회 교회사회선교위원회에 문서를 보고 중부교회 당회가 그에 대해 해명했다. 그리고 마침 11월에는 최성 집사가 기독교 장로회 경남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문제는 교단의 문제로 비화되었다. 고소장에 제출된 문제는 여섯가지였다.

첫째, 목사로서 주, 초를 상습적으로 했다는 문제, 둘째, 목사의 겸직 금지를 어기고 신학교 강의를 한 문제, 셋째, 1979년 국민연합 사건과 1981년 부림사건 유인물과 관련해서 배신행위를 했다는 문제, 넷째, 대관부 재정의 문제, 다섯째, 노령의 권사에게 폭언을 했다는 문제, 여섯째, 사찰 집사를 무상으로 가사노동에 이용했다는 문제였다.

이 고소에 대해 1983년 5월 24일 기장 경남노회 재판국은 최성목이 중부교회 담임 목사직(시무)을 해임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 목사가 주초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청빙되었음에도 그런 약속이 없었다고 위증했으며, 주초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며, 둘째, 최 목사가 부산신학교 조교수로서 이 중직을 가졌음에도 실제로는 시간강사라 진술한 것은 허위 진술이라는 것이며, 셋째, 재판국이 대관부 회계장부의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이며, 넷째, 제직회에서 폭언이나 다섯째, 사찰 집사에 대한 부당한 사역 등이 모두 증인들에 의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결문에서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1979년 국민연합 사건과 1981년 부림사건 유인물과 관련해서 배신행위를 했다는 고소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다.

경남노회의 보수세력이 주도한 이러한 판결을 둘러싸고, 노회는 최성목을 옹호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으로 갈렸고 평소 고인을 아끼고 지지하던 사람들과 민주화운동에 동역했던 목사와 장로들은 이의 부당함을 총회에 상소하는 등 반격을 취하였다. 그러나 판결을 주도한 세력들은 최성목과 함께 부산신학교에 출강하던 다른 목사까지 이중직을 가졌다는 명목으로 회원권을 박탈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기수 목사가 노회장이 되어야 회원권 박탈 음모를 저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일부 목사와 장로들은 적극 움직여 어렵사리 노회가 개회되고 노회장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김기수 목사는 보수파 목사와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과반수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보수파는 다음 회의에서 전날의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노회를 구성하여 끝 최성목과 다른 목사들의 회원권을 박탈함으로써 노회는 둘로 갈라졌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양측의 타협이 이루어져 최성목의 해임과 회원권 박탈은 1984년에 가서야 원상회복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1980년 5월에 쓰러진 이후 겨우 회복된 최성목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

다. 그 결과 그는 ... 다. 위
의 스트레스가 너무 ... 고 한다

31. 민주화운동

이런 상황에서도 ... 지 않았다.

부림사건과 부산 ... 부산의 민
경과하면서 서서히 ... 상징적으로 보
사회운동단체의 활 ... 대적으로 피하
서 한국교회사회선 ... KNCC 부산인
월 창립), 부산지 ... 정의평화위원회
년 7월 창립) 등과 ... 기 시작했다.

1984년 4월 22일 ... 칭 부산인권위원
권위원회 사무국장 ... 지원으로 설립된 지
서 부산지역의 15 ... 성되었다. 초대우
(서교회)였고, 최 ... 권위원회는 창립 직후
의 대규모 시위사건 ... 시국사건에 대한 일
동과 『부산인권소 ... 속자를 위한 기도회
왕성한 공개 활동 ... 폭발적 호응을 받았던 1
거부운동도 부산에 ... 도말다시피 했다.

종교단체에 이어 ... 산지부가 1984년 10월에 창
언 문제, 온산의 공 ... 따른 공해 피해 등에 대처하
하였다. 공해문제연 ... 과 부산의 최준영, 고희석, 최
지부 설립 논의가 ... 천주교의 손덕만, 송기인 신부
선 목사를 비롯해 ... 재인 변호사 등 부산의 대표적
하여 공식 출범을 ... 산업화 위주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여러 공해문제들을 ... 군사독재정권의 반민주성과 반민중
을 했다.

이렇게 학생운동 ... 노동운동, 문화운동 등 부문운동도 활 ... 하면서 재야운동
과 청년운동의 연대 ... 대한 요구가 일어나게 되었다. 서울의 민주 ... 일국만회의와 민중
민주운동협의회의 ... 합의에 발맞춰 1985년 5월 마침 ... 80년대 부산지역운동의 가장 대
표적 조직인 부산민주시민협의회(부민협)가 출범했다. 이 조직은 종교계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다. 송신부, 최성묵 목사, 김광일 변호사 등 대표적 재야인사들의 요구와 민청학련과 함께 전국적 연대 속여지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탈종교적 운동단체를 만들고 있었던 청년활동가들의 요구가 맞물리면서 만들어졌고, 그 간의 여러 활동을 통해 손발을 맞춘 학생운동 선후배들이 실무 일선에 포진되었기 때문에 타 지역들에 비해 매우 순조롭게 활동을 해 나갔으며 종교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거의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지역의 이런 원만한 협조관계는 87년 6월 쟁을 힘차게 치러 는 데 든든한 밑받침이 되었다.

부민협 의 초대 회장은 송기인 신부가 맡았으나 1987년 초, 부산교구청 주교의 명으로 미국의 대학으로 1년간 가게 되었다. 교구청의 이런 결정은 정보기관의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천주교의 체계 상 신부가 주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 중요한 시기에 송신부가 해외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김광일 변호사와 요산 김정환 선생이 주교를 찾아가서 의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는 출국을 해야 하니 부민협을 맡아 달라.”는 송신부의 말에 최성묵은 펄쩍 뛰면서 “사제직을 포기하더라도 그런 인사명령은 거부하라.”고 흥분된 어조로 요구 했다. 그러나 송신부가 도미한 후에는 어쩔 수 없이 최성묵이 부민협 회장을 맡아 6월 쟁을 치르게 되었다.

32. 사회사업에도 헌신을

최성묵은 이런 가운데서도 사회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힘을 기울였다. 맨먼저 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여 1985년 2월 한울장애인자활센터를 열었다. 이는 당시까지 장애인 교육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부산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일이었다. 한울장애인자활센터에서는 매년 교육생을 모집하여 무료로 1년간 직업교육을 실시했는데 먼저 컴퓨터 교육을 시작했다. 이 교육은 제10기까지 계속되었다. 지금은 컴퓨터가 보편화되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일반에게 보급되기 전이었다. 당시로서는 첨단기술을 가르친 셈이었다. 그래서 1년의 교육으로도 교육받은 장애청년들이 공기업, 도서관, 회사 등에 취업하여 떳떳한 직업을 갖게 되었다.

제1기 교육 때는 2형 XT형 컴퓨터 1대를 놓고 시작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컴퓨터도 늘어나고 교육생 수도 늘어갔다. 1988년에는 올림픽 때 사용했던 IBM 컴퓨터를 기증받기도 하고, 한울장애인자활센터의 운영위원이었던 이강현이 미국에 들어가 모금을 하여 그 돈으로 당시 신형 모델인 286 컴퓨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당시로서는 참으로 선진적인 장애인 직업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 또 컴퓨터 교육과 함께 인쇄기술교육 과정을 신설하여 과정을 이수한 장애청년들이 인쇄소에 취업할 있도록 지원했다.

장애인교육사업에 이어 최성묵은 장애어린이 조기교육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당시 윤원수 부산지역 뇌성마비복지회 사무국장이 “부산지역 장애어린이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시급하니 중부교회에서 시작하면 모든 교회로 전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안을 받고 최성묵은 그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사업을 위해 최성묵은 독지가를 모으기 시작했고 재일동포 독지가의 도움으로 중부교회에 부설 한울장애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이강현도 미국에서 다니던 교회와 로드아일랜드 한인회에 부탁하여 1천불의 성금을 모았다. 한울장애어린이집은 1990년에 전국 최초의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개원하였는데 조성 장로를 원장으로 3명의 교사와 10여명의 어린이들로 출발하였다.

또 최성묵은 이강현에게 부산시향 후원회를 成해 달라는 부산시 문화회관 측의 요청을 듣고 문화방송의 유관수 국장 등과 함께 사람들을 모아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듣고 있던 부산의 문화를 가꾸는 일에도 앞장섰다. 그 결과 1990년 3월 부산시민 20여명을 회원으로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후원회’(회장 조평래 해동병원장)가 발족되었는데 이는 국 초유의 일이었다.

또한 이대근, 유관수, 이강현 등이 중심이 된 한국자원봉사연합회(국 최초의 자원봉사센터)가 1991년 2월에 개설되었는데 이 사업에도 최성묵의 지지와 격려가 있었다고 한다.

이 모든 사회사업들이 한국 혹은 부산 최초의 사업이라는 것은 최성묵이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시대를 앞서 가는 안목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3. 6월 쟁과 대통령 선거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다. 박 군은 부산 출신이었다. 부마 쟁의 주역이었지만 신군부의 쿠데타와 5·18 쟁을 가슴 쓰리게 지켜보기만 했던 부산시민들에게 이 사건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6월 쟁의 전 과정에서 부산시민들은 정말 당당하고 치열하게 싸웠다. 2.7 추모대회 때 부산시민들은 10월 부마 쟁의 거리로 되돌아온 느낌을 가졌고, 3.3, 6.10을 거치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을 끝장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매일 매일의 치열한 쟁의 과정이 특히,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꼬박 10일간 밤낮없이 시 중심가를 누비며 대규모 시위를 벌인 열정이나 가톨릭센터 농성의 치열함, 그리고 6월 18일 저녁 서면에서 조방 앞까지의 대로를 발 디딜 틈도 없이 가득 메운 30만 시민이 소리 높여 외쳤던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그것을 웅변해 주었다. 이 기간 동안 부산시민이 헌신적으로 보여주었던 민주화에 대한 불굴의 열정은

6·29선언을 이끌어 는 가장 결정적인 동인이 되었고, 두고두고 부산의 자긍심으로 남아 있다.

이 쟁의 중심에 최성묵이 있었다. 당시 상황을 문재인은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특히 송기인 신부님의 도미 중에 맞이한 1987년의 6월 쟁 기간 동안 그는 부민협 회장으로 부산 국본의 상임공동대표가 됨으로써 무거운 짐을 홀로 도맡았을 뿐 아니라, 중부교회를 쟁의 본부로 제공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직접 가두에 나서 시위대의 선두에 섰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쟁의 중심이 되었다. ... 당시 부산시민들은 유신체제를 끝낸 부마민주 쟁에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6월 쟁에서도 부산시민들이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였다. 그러나 시민들의 쟁의지를 결집시켜 어느 지역보다 뜨겁게 타오르게 한 데는 부산 국본의 상임공동대표였던 최 목사와 상임집행위원장이었던 노무현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때 그들은 단지 간판이나 상징적인 존재에 머물지 않고 직접 가두에 나서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 대열의 선두에 섰고 최루탄을 맞으면서 경찰과 맞섰다.

목사, 신부, 변호사 같은 점잔 빼는 이들이 매일 일반 시민들과 뒤섞여 최루탄에 쫓겨 다니면서 가두시위에 참가하고 나아가서 선두에 서서 시위대열을 이끈 것은 아마도 6월 쟁 때의 부산 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다. 대표 최성묵, 집행위원장 노무현이라는 환상적인 콤비의 앞장 선 솔선수범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6월 쟁에서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지식인들의 사회참여 방식의 마지막 한계 같은 것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땅의 민주화를 좌우할 결정적 국면이라는 역사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터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회적 체면 같은 것에 얽매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특히 존경받아야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문재인,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333-336쪽).

1987년 6월 쟁이 6.29선언으로 매듭지어지자 곧 전국의 노동현장이 들끓기 시작했다. 부산국본의 참가단체로 부산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가 있었고 부산민주시민협의회 산하에 노조추진위원회를 두고 노조결성을 지원하였다. 7월초부터 각계 각층의 노동자들이 국본 사무실로 몰려와서 노조설립과 투쟁 방향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구하였다. 노동운동가들은 상담을 하는 한편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노조결성을 도왔다. 이 움직임은 7,8월 노동자대투쟁으로 이어졌다.

6월 쟁 후 제임스 릴리 주한미국대사가 민심도 살필 겸 부산을 려와 중부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이때 최성묵은 릴리 대사에게 “부산시민 중에는 민주화를 거부하는 세력을 돕는 미국의 태도에 격분해 미국인을 보면 테러를 불사할 각오로 품에 칼을 품고

다나... "나 조심하라"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19... 전쟁의 승리로 군부독재를 끝장낼 수 있으리라 믿었던 많은 국민... 김 씨의 분열과 군부정권의 재집권 가능성 앞에서 또 한 번 좌절... 평화민주당의 창당이 야권분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박상도 와... 사람을 만나 국민의 염원은 야권단합임을 간곡히 호소하였으 나...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군정 종식을 국민들에 게... 김영삼 지지자들이 조직한 집회나 김대중 지지자들이 조직한 집 회를... 기회가 있으면 사자후를 토했다. 또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민주 쟁취... 명선거감시 부산본부장을 맡아 선거 감시에 열심히 노력하였다. 그러나 최성... 노력에도 분열된 야당은 군부정권을 이길 수 없었다. 최성목은 선거결과 를... 텔레비전을 보면서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대... 선거도 끝난 1987년 겨울, 부산지역 운동단체 실무자들을 뵈어서 근처 술집으 로 불러 최성목이 위로주를 샀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인순이 기억하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는 인간 최성목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들 떠들썩하니 술이 취해 가는데 저는 제 우울한 심사에만 폭 빠져 있었지요. ... 목사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잡고 사랑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아이, 이 귀신들아, 가 너저들 때문에 아직도 이려고 산다." 그 때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어이, 티나, 오늘 왜 그리 조용하냐?"(당시 저는 천사협회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제 가톨릭 영세명인 크리스티나를 줄여서 티나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놓칠세라 목사님이 술잔을 들고 제 옆자리로 오셨지요. "어이, 티나, 왜 그리 조용하냐?"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단 한번도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는데 저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어이, 늙은 귀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잠시, 정말 잠시, 분위기가 어색해지 기도 전에 목사님이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더군요. "늙은 귀신? 하하하하. 그래, 그 래. 늙은 귀신 조용히 해야지. 하하하" 그제서야 선배들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그 래, 환는 짓이 티나답다." ... 그 때 못 드렸던 사과의 말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이...도 그런...래를 웃으며 받아주지

근감을 느꼈다. 또한 “~~어~~ 사라는 말로 ~~데~~ 이것은 변변치 못한 목사, 목사답지 못한 ~~사~~라는 뜻이라고 한다. ~~성~~목과 그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하~~던 언어였다.

군사정권 시기, 밖에서 최성목이 민주화운동 ~~한~~ 김순이는 교회 일과 함께 수시로 터지는 연행 사태에 대처하느라고 고생 ~~한~~ 서에 연행되면 면회 갈 때 들고 갈 옷 보따리는 ~~상~~ 집에 따로 준비해 두었다. ~~가~~가 사위까지 운동권 목사였기 때문에 남편과 사위가 번갈아 경찰서를 드나드는 ~~순~~에 살림은 어떻게 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다고 술회했다.

34. 설교와 신학사상

최성목은 평소 매우 감동적인 설교로 교인들을 감화시켰으나, 정작 자신의 설교집도 한 권 남기지 않았다. 신이건은 최성목의 설교가 청년들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고 저 과 희망의 꿈을 늘 심어주었다고 회상하면서 자신이 중부교회로 적을 옮긴 이유가 최성목의 설교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선생님의 설교는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과 호랑이가 포효하는 듯한 격분과 때로는 너무나 사람냄새가 나는 인간적인 말씀이었다. 생전에 선생님께 “선생님! 설교집 하나 만듭시다”라고 말씀드리면, “야! 그런 것 필요 없어.”라고 하셨다. 당시 교인들이 선생님의 설교 용을 개별 녹음한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찾을 길이 없다.(임실근,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289쪽)

최성목이 자신의 설교집을 만들지 않았던 것은 그 삶의 태도와 관련되지만 그의 설교를 분석한 김명수는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최성목 목사의 설교의 특징은 성서 본문과 오늘의 상황 사이에 균형(balance)과 조화(harmony)를 잘 이루고 있는데 있다. 한편으로 그의 설교는 성서 본문이 담고 있는 사회역사적 연~~연~~에 충실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민중이 겪는 고난의 현실과 오늘 한국 민중이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그의 설교 메시지에서 하나로 합류한다. 아마도 그의 설교가 당시 부산지역의 비판적 지식인과 사회참여적인 청년학생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의 설교가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켜주었기 때문일 것이다(김명수,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35쪽).

김명수의 ... 작해서 오늘 이 평 ...
 파악하는 데 ... 과 예수의 사랑을 ...
 하는 것이다 ... 교에서 그 사랑의 범위를 ...
 한다. 즉, ...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
 관심을 기울 ... , 불자, 창녀, 세리 등이 ...
 가난하고 억 ... 수의 하나님 나라 선교의 ...
 왔다. 그래서 ... 와 해방에서 찾는다. 복음에 ...
 과 자유의 ... 은 “해방자 예수”라는 설교에 ... 민 ...
 중을 질병, ... 했고, 인간을 걱정과 불안 등 ... 허무로 ...
 부터 해방사 ... 해방시켰다고 말한다. 예수를 ... 그 안에 ...
 서 자유를 ... 간 되며, 인간을 억압하는 사회의 ... 조악을 좌 ...
 시해서도 인 ... 민을 세우는 투쟁에 참여함으로써 역사의 한 복 ...
 판에서 그리 ... 을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 ...
 었다.

이러한 초 ... 70-80년대 한국에서 형성된 민중신학의 한 전형을 ...
 보여주는 것 ... 의 한국사회에서 억압된 민중의 삶을 신학의 주제 ...
 로 삼아 발 ... 알려졌거니와 최성묵 목사는 이 민중신학을 ...
 체적 목회 ... 쟁의 일선에서 몸으로 실천함으로써 민중신학에 생명 ...
 력을 불어넣 ...

35. 거역

1987년 대 ... 문부장관의 재촉권으로 끝난 다음 해 1988년 4월에 치르진 총선 ...
 거는 야 3당 ... 민주당, 공화당)의 의석이 집권 민정당보다 많은 사상 초유의 여소야 ...
 대 정국을 ... 었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보수세력의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
 밀실험상을 ... 해 이른바 3당(민정당, 민주당, 공화당)합당이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으로 ...
 이루어진다. 이 3당합당은 반호남 지역주의에 기초한 보수대연합의 결정판이었다. 특히 ...
 부산지역에 기반을 둔 민주당과 김영삼 세력이 하루아침에 여당으로 변신하면서 재야 민 ...
 주세력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 3당합당 직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
 2월 22일 ‘민자당 장기집권 음모 저지 및 민중기본권 쟁취 부산시민운동본부’를 결성하고 ...
 지역의 운동세력을 반민자당투쟁이라는 공동전선으로 묶는 조직적 연대를 확산하고 3월 ...

이후 다양한 활동

그러나 부산지역에서는 1991년 상반기 특

1991년 4월 26일 1991년 4월 26일 5월 4일, 4~5만 시
민대회'를 비롯하여 시민들의 반노태 조직화하고 민족 6월의 지방선거

6월 20일 지방 있었으나 당선자 51석 중 50석을

6월 쟁에 버금 형의 변화는 부산 자당의 승리는 의 도시, 부산의 일어났기 때문이

이런 상황에서 동 세력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성목은 이러한 최성목은 1991년 4월 재야 인사

최성목은 1991년 4월 재야 인사 재가 이끄는 평화민주당(평민당)이

신민연의 중심인물이었던 이우정 교수가 최목사님을 집요하게 설득하여 신민당 창당 1 개월 후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당시 나는 최목사님에게 정당 참여를 반대하는 이유로 민주화의 진전으로 교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은 끝났으며 지금 입당하면 그동안의 운동이 정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목사님은 3당합당으로 보수대연합이 완성되었으므로 민주화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세력은 김대 중의 평민당 밖에 없다는 것, 향후 더 심각해 질 조짐을 보이는 지역주의 때문에 동서화 합이 절실하다는 이유로 굽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현실정치에 발을 들여 놓음으로써 목회자나 민주화운동 지도자로서의 명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잘 알지만 그 길이 자신에 게 주어진 십자가이며 그것을 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다.(박상도, 『그의 부활을 기

다리며』, 85

신민주연합당에 9월, 31일 거부한 이기택, 노무현, 김정길 등 민주당 잔류파 59명과 무소속 의원인 안종, 이철 등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주연합당(민주연합)과 통합하게 된다. 이 통합대회에 참여한 최성묵은 본인 의사와 함께 최고위원으로 추대되었다. 어쨌든 그로써 거대 여당 민자당에 맞서는 야당의 통합이 완료되었다.

그의 정당 참여에 대해 가족과 교인 등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하였다. 임실근 집사도 그랬다. 한번은 최성묵이 정당 참여 문제로 화가 나서 그에게 소리치기도 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는 것이 야속해서 그랬던 것 같다.

그러나, 김순이의 회상에 의하면 신민주연합당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성묵은 곧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정당 정치가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너무 많이 달라서 선거만 마치면 그만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점석도 다른 일로 최성묵을 만난 자리에서 왜 평민당에 입당했는지, 정치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 최성묵은 허허 웃으면서 정당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명쾌하게 말하고 지금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부산에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후에 최성묵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우정 교수는 고사하는 최성묵을 자신이 적극 추천하여 정당에 참여시켜 죄송하다는 조사를 했으며, 김상근 목사는 최성묵은 결코 현실정치에 직접 참여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성묵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열심히 선거를 준비해 나갔다. 1992년 3월 24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 선거를 이틀 앞 둔 3월 22일 그는 오후에 거제도에서 열린 기독교 장로회 경남노회를 다녀왔다. 그는 노회 참석자들을 숙소에서 쉬게 한 후 자정 무렵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부평동 시장 바닥에 쓰러졌다. 사람의 왕래가 끊어진 시각이었는데 인근 술집의 주인이 그를 발견하여 메리놀 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늦었던 것이다. 향년 61세, 평생을 민주화에 몸바쳤던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이며, 훌륭한 목회자이며, 사회사업가였던 위대한 인물의 최후였다.

참고문헌

- 최성묵 목사 10주기 추모사업준비위원회, 2002, 『그의 부활을 기다리며』, 부산: 인쇄골
고호석, 2007, 「부산지역의 6월 쟁」, (사)6월민주 쟁계승사업회 편, 『6월 쟁을 기록하
다』, 서울: (사)6월민주 쟁계승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현장, 1994, 『빈체시오, 살아서 증언하라』, 서울: (주)사회평론
부마민주 쟁기념사업회, 1989, 『부마민주 쟁10주년기념자료집』, 부산: 건양기획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 부산광역시
신홍범 정리, 2010, 『박형규 회고록 -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서울: 창비.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2008,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60년사』 (CD자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외 편, 1997, 『살아서 만나리라』, 서울: 전국민족민주열사회
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홍해제일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2006, 『홍해제일교회 100년사』, 포 : 홍해제일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중부교회50년사발간위원회, 2007, 『중부교회 희년 50년』, 한국기독교
장로회 중부교회

구술자료

- 강혜순 (당시 홍해제일교회 전도사)
김순이 (고 최성묵의 사모)
김형기 (현 경주 팔복교회 목사)
박상도 (전 부산YMCA 이사장)
이직형 (장로)
임실근 (전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무)
차선각 (목사, 고려대 안산병원 원목실장)

문서자료

- 최성묵의 포 중학교 학적부, 졸업증명서
최성묵의 서울대학교 재적증명서
최성묵의 한신대학교 졸업증명서
최성묵의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증명서
최성묵의 제적등본
김운조(홍해제일교회 장로)의 서신